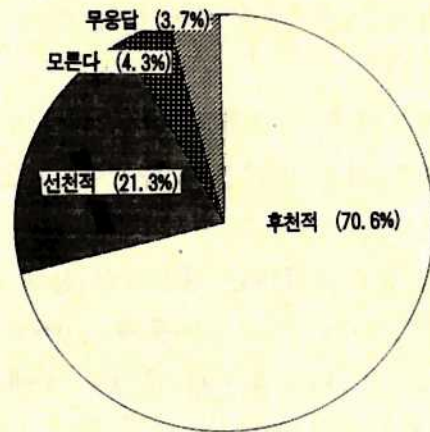


### 전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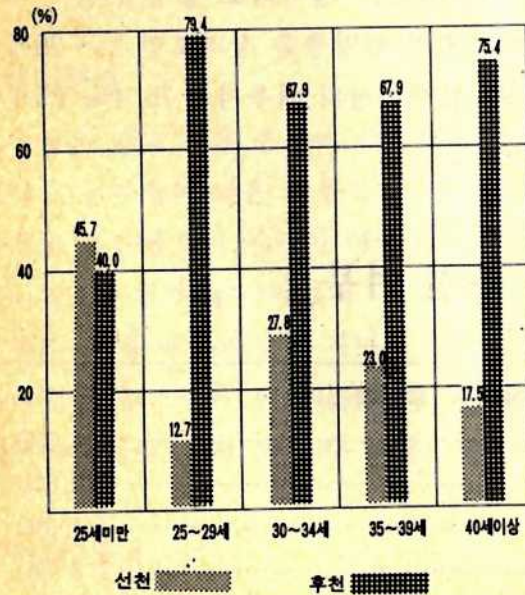
남편의 장애발생이 선천적이라고 응답한 배우자는 21.3%, 후천적이라고 응답한 배우자는 70.6%로 나타났다.

참고로 한국갤럽조사 연구소가 지난 <표 3-23> 남편의 장애선천 또는 후천여부 85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은 89.8%가 후천적이며 시각장애인은 82.7%, 지체장애인은 79.2%가 후천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전영역의 후천적 장애발생에는 4세이하가 52.6%, 5~12세 23.4%, 13세 이상이 23.6%로 50%이상이 4세이하에서 발생하고 있어, 4세이하의 유아때 장애발생 방지를 위해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표 3-24> 연령별 남편장애 선천 또는 후천여부



또한 지난 91년에 조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발생원인중 출생후의 원인으로 지체장애인은 95.1%, 언어장애인의 97.0%, 시각장애인은 93.7%, 청각장애인은 93.1%, 언어장애인의 97.1%가 출생후 원인이었다.

반면 정신지체인은 55.7%가 출생후의 원인이며 출생전 및 출생시의 원인이 각각 26.4%, 17.9%로 나타났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장애발생 시

기를 살펴보면 돌전 3.6%, 1~6세, 15.0%, 7~19세 9.8%, 20~39세 24.2%, 4~59세 26.0%, 60세이상 21.3%로 각각 나타났다.

### 연령별 분석

남편이 선천적 장애라고 응답한 연령층을 살펴보면 25~29세가 12.7%, 30~34세, 27.8%, 35~39세 23.0%, 40세이상 17.5%로 나타났으나 45.7%가 선천적 장애라고 응답, 선천적장애와 3세이전등 유아때 장애를 입었을 경우도 선천적 장애로 응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반해 후천적 장애라고 응답한 배우자의 연령층을 살펴보면 25~29세가 79.4%, 30~34세 67.9%, 35~39세 67.9% 40세이상의 배우자는 75.4%, 25세미만은 40.0%로 각각 응답했다.

### 학력별 분석

무학의 배우자 남편과 대졸 배우자 남편의 경우 선천적, 후천적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무학의 배우자 경우 남편이 어렸을때 즉 3세이하때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선천적 장애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선천적 장애인이 많다고 응답한 것이다.

무학의 배우자 남편은 선천적 장애가 40.0% 후천적 장애가 49.2%하고 응답을 하였으며 대졸의 경우 선천적 장애를 4.8%, 후천적이 81.0%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졸에서 전문대졸 배우자들은 남편이 선천적 장애인이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0% 수준이었으며 후천적 장애인 70%정도로 나타났다.

### 지역별 분석

남편의 장애가 선천적이라고 응답한 배우자들은 농·어촌의 경우 25.2%, 중소도시 17.6%, 대도시 21.1%이었으며 후천적이라고 응답한 배우자는 농·어촌이 67.9%, 중소도시는 75.1%, 대도시는 71.3%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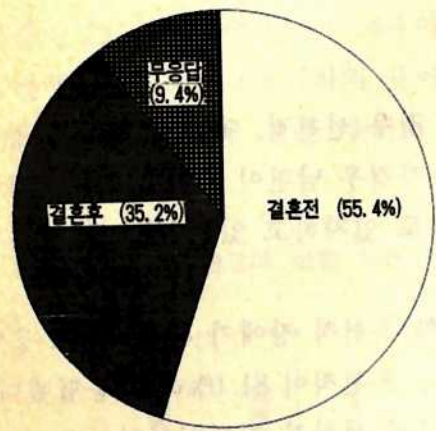


### 13. 남편의 장애발생 결혼전 결혼후 유무.

귀하 남편은 장애 발생은 결혼전이었습니까 아니면 결혼후에 발생했습니까?	
1) 결혼전 .....	(55.4%)
2) 결혼후 .....	(35.2%)
3) 무응답 .....	(9.4%)

#### 전체 분석

<표 3-25> 남편의 장애발생 결혼전·후



남편의 장애발생이 결혼전과 결혼후의 발생여부를 묻는 질문에 결혼전이 55.4%, 결혼후가 35.2%로 나타나 후천적장애발생과 함께 결혼후 장애발생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응답자 자신의 주관적이 응답임을 유의해야 하며 전체장애인의 절대적인 수치의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결혼후의 장애발생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것은 산업재해나 교통

사고등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률의 심각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와같은 장애발생은 연령이나 학력·지역에 관계없이 10명중 3명이 결혼후에 장애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에서 장애예방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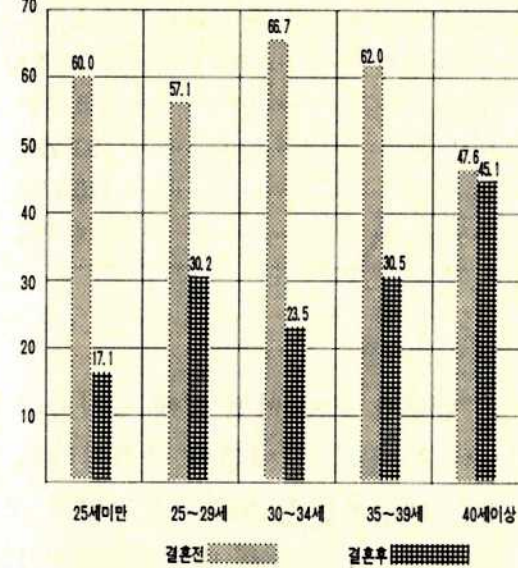
서울시가 지난 90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만 19~30세까지의 청년기에는 일반외상 21.5%, 산업재해 19.4%, 군복무중 안전사고 또는 전시부상 16.1%, 교통사고 16.1%의 순으로 장애발생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 만 31~40세까지의 장년기에는 산업재해가 32.7%로 가장높은 장애발생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반외상 14.8%,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발생도 12.7%로 나타

났다.

만 41~50세의 시기에는 산업재해 29.6%, 교통사고 22.2%, 일반외상 14.8% 순으로 장애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19세이상부터는 산업재해 혹은 교통사고등 사회성 재해가 장애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6> 남편의 장애발생 결혼전·후 유무 (연령별)



#### 연령별 분석

결혼후 남편의 각종사고로 장애인 된 경우 즉 후천적 장애인 되었다고 응답한 25세 미만의 배우자의 경우 17.1%였으며 25~29세 30.2%, 30~34세 30.5%, 40세 이상의 배우자는 45.1%가 결혼후 장애발생이 되었다고 응답, 충격을 주고 있다.

#### 학력별 분석

결혼후에 남편이 장애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학력별로 자세히 분석해보면 무학은 30.8%, 국졸 41.6%, 중졸 36.2%, 고졸 28.7%, 전문대졸 30.4% 대졸의 배우자 경우 28.6%라고 응답하여 결혼후 사고로 인해 장애발생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어 충격을 주고 있다.

#### 지역별 분석

남편이 결혼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배우자들은 대도시가 40.2%, 중소도시 33.9%, 농·어촌 31.8%라고 응답했다.

이는 대도시일수록 후천적 장애인이 대부분 결혼후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신체적 장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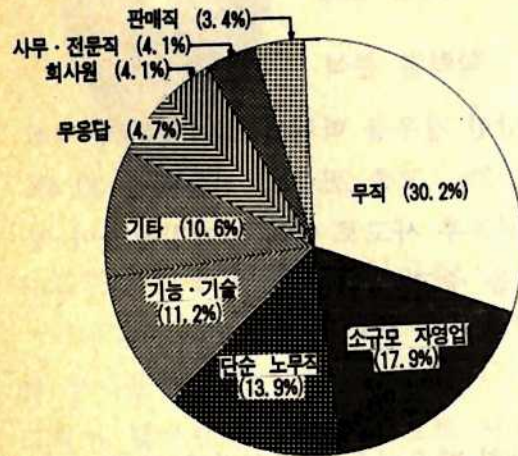
## 14. 남편의 직업

귀하 남편은 현재 무슨일을 하고 계십니까?

1) 기능·기술	(11.2%)
2) 단순 노무직	(13.9%)
3) 소규모 자영업	(17.9%)
4) 회사원	(4.1%)
5) 사무·전문직	(4.1%)
6) 판매직	(3.4%)
7) 무직	(30.2%)
8) 기타	(10.6%)
9) 무응답	(4.7%)

전체 분석

〈표 3-27〉 남편의 직업



“남편이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남편이 무직이라고 응답한 배우자들은 30.2%나 되었고 소규모 자영업이 17.9%, 단순노무직이 13.9%, 판매직이 3.4%를 차지하여 지체장애를 가진 남편의 35.2%가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지체장애인 가장들이 30%가 넘게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배우자들이 직장이나 파출부등으로 가정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회사원과 사무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배우자는 각각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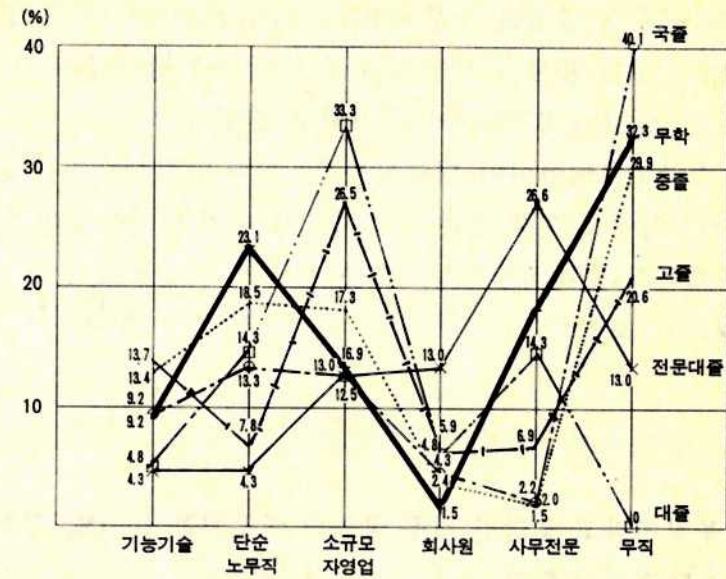
한편 한국갤럽조사 연구소가 전장애영역에 걸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능, 기술,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은 숙련된 기능(술)이 필요한 직업과 미숙련 직업직으로 양재사, 미싱사, 공예사, 요리사, 피아노 조율사, 금은 세공

사, 보일러 보석가공사, 치과기공사, 공원등 직업의 유형이 있었다.

또 소규모 자영업에는 인장업, 전과사, 양화점, 표구점, 금은방등 소자본으로 점포를 운영하거나 수공업등을 하는 경우와 행상도 있었다.

사무, 전문직에는 종교인, 교사, 예술가, 공무원등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에는 구걸등이 있었다.

〈표 3-28〉 배우자 연령별 남편의 직업



서울시가 지난 90년에 조사한 자료에서 지체장애인 가구주의 직업을 살펴보면 무직이 26.6%, 단순노무직이 11.8%, 기술·기능직이 13.2%, 자영업 23.6%, 회사원 15.9%, 공무원 5.5%, 교원 0.5%, 종교인 0.7%, 전문직 2.3%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직이 높게 나타난것은 장애인 상당수가 어려운 경제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 분석

남편의 직업이 무직인 경우 25세 미만의 배우자 남편은 8.6%로 전체의 30.2%보다 훨씬 많은 남편이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기능·기술직이 14.3%, 사무·전문직도 11.4%를 차지, 다른 연령층보다 고급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29세의 배우자 남편이 무직인 경우는 19.0%, 30~35세 25.9%, 35~39세 28.9%, 40세 이상의 배우자 남편은 36.1%가 무직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은 지체장애 남편일수록 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나이가 젊을수록 사무·전문직이나 기능·기술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30~35세의 배우자 남편은 사무·전문직에 6.8%와 기능·기술직에 11.1%가 종사하고 있는 반면 40세 이상의 배우자 지체장애 남편들은 사무·전문직에 3.0%와 기능·기술직에 8.3%만이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대체로 소규모자영업이나 단순노무직, 판매직등 단순직에 30%에서 ~40%선으로 나타나 장애로 인해 전문직 종사보다 혼자 일하는등의 단순직을 장애 남편들은 선호하거나 사회구조상, 또는 장애의 편견으로 인해 단순직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학력별 분석

남편이 현재 무직이라고 응답한 경우 국졸의 배우자는 40.1%, 무학의 배우자는 32.3%라고 응답했고 무학의 경우 26.2%의 남편들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고졸의 배우자 남편은 26.5%가 소규모 자영업을, 전문대졸 배우자 남편은 회사원인 경우가 13.0%, 사무·전문직에 26.1%가 종사하고 있으며 대졸의 배우자 남편 33.3%가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직인 경우는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 지역별 분석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남편의 직업은 무직이 33.6%이며 소규모 자영업이 17.3% 단순 노무직이 14.5%, 기능기술인이 9.4%, 회사원 3.8%, 사무 전문직이 2.5%, 판매직이 1.9%, 기타 13.5%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도시의 배우자 남편은 무직이 28.9%, 소규모 자영업이 18.9%,

단순노무직 15.0%, 기능기술이 12.6%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의 배우자 남편의 직업은 무직이 27.3%, 소규모 자영업 18.2%, 단순노무직 12.9%, 기능기술직이 12.4%, 회사원이 7.2%, 사무·전문직이 5.3%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 직업의 경우가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들의 직업보다 다소 다양하며 심한 편중의 정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의 경우 회사원이 7.2%로 나타나 중·소도시의 2.3%, 농·어촌 3.8%보다 훨씬 높고 사무전문직도 5.3%로 중소도시의 4.7%, 농·어촌의 2.5%보다 높게 나타났다.

## 15. 남편이 일하고 있지 않는 이유

(귀하 남편은 직업이 없는 경우) 현재 남편이 일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일자리가 없어서 .....       | (12.0%) |
| 2) 장애 때문에 .....         | (31.5%) |
| 3) 기술 또는 능력부족으로 .....   | (4.1%)  |
| 4) 다른 가족이 돈을 벌기때문 ..... | (1.7%)  |
| 5) 일반인의 편견때문에 .....     | (2.8%)  |
| 6) 자금이 없어서 .....        | (8.2%)  |
| 7) 기 타 .....            | (6.2%)  |
| 8) 무응답 .....            | (33.6%) |

### 전체 분석

배우자들은 남편이 일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31.5%가 장애때문이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배우자도 12.0%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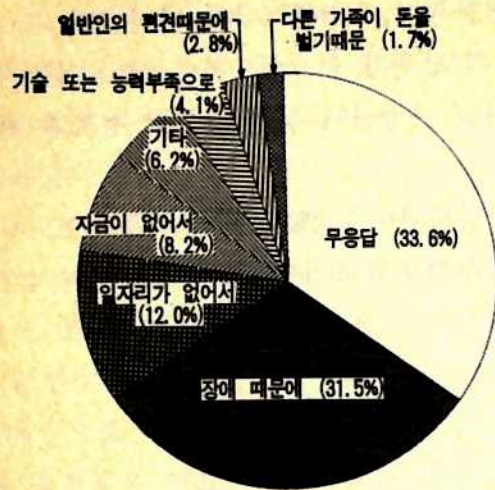
또한 일을 하고 싶지만 자금이 없어서(8.2%), 기술 또는 능력부족으로(4.1%) 일을 하지 못한다고 배우자들은 지적했다.

이밖에 비장애인의 편견(2.8%)과 다른 가족이 돈을 벌기 때문에(1.7%)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표 3-29> 남편이 일하고 있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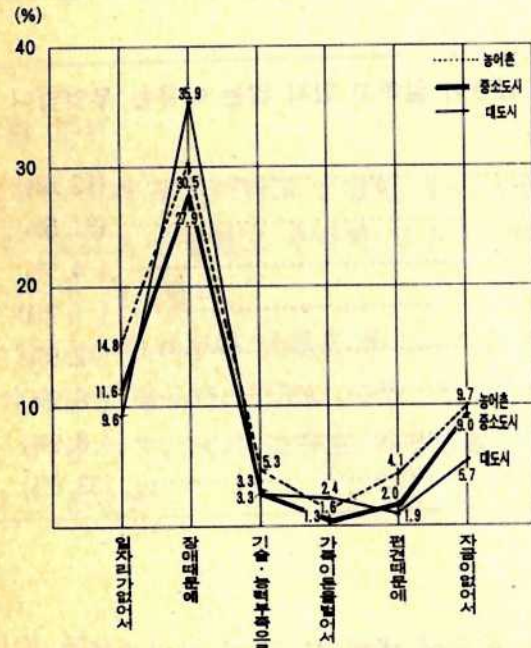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지체장애인들에게 알맞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보급, 지체장애인들의 생활자립을 도모하여 일할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연령별 분석

남편들이 일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거나 기술 또는 능력 또한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편의 장애로 인해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배우자들은 호소했다.

<표 3-30> 남편이 일하고 있지 않는 이유(지역별)



이는 즉 40세 이상의 배우자 37.3%가 남편이 장애때문에 일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35~39세도 30.5%, 30~34세 27.2%, 25~29세 17.5%, 25세이하 20.0%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체로 11%선으로 같았으며 기술·능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한 경우도 3.8%~4.3% 수준이었다.

특히 25세 이하의 배우자들도

다른가족이 돈을 벌기 때문에 (8.6%) 또는 일반인의 편견 때문에 (11.4%) 일하지 못한 이유라고 응답, 다른 연령층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 학력별 분석

무직이 40%를 차지했던 국졸 배우자 남편의 경우는 38.0%가 장애때문에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고, 32.3%가 무직이라고 응답한 무학의 배우자 남편의 경우도 26.2%가 장애때문이며, 일자리가 없거나 (12.3%), 자금이 없어서 (13.8%), 일하지 못한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체응답자들은 남편이 기술, 또는 능력부족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은 1%에서 8%에 지나지 않았다.

### 지역별 분석

대도시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특히 장애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으로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체장애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35.9%가 남편이 장애때문에 일하지 못하고 있으며 9.6%는 일자리가 없어서, 5.7%는 자금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중소도시의 배우자 27.9%와 농·어촌의 배우자 30.5%가 장애때문에 11.6%와 14.8%는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16. 남편의 수입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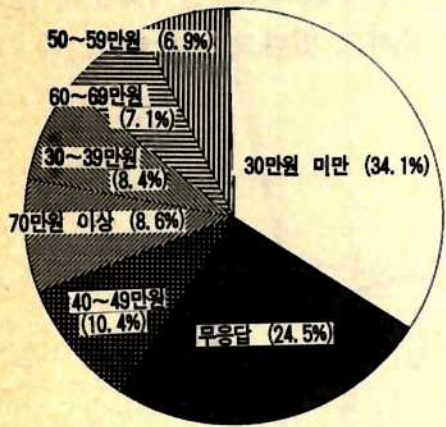
귀하 남편의 한달 수입은 얼마입니까?

1) 30만원 미만	(34.1%)
2) 30~39만원	(8.4%)
3) 40~49만원	(10.4%)
4) 50~59만원	(6.9%)
5) 60~69만원	(7.1%)
6) 70만원 이상	(8.6%)
7) 무응답	(24.5%)

### 전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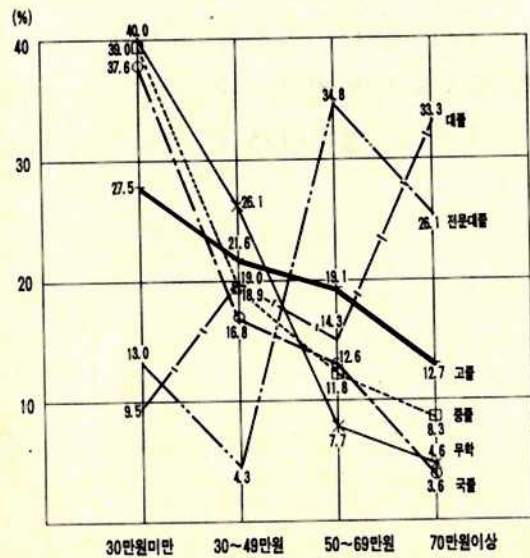
남편의 한달수입이 30만원 이하가 34.1%를 차지하여 직업이 있어도 가정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남편의 수입



또한 30~39만원이 8.4%, 40~49만원이 10.4%로 응답, 남편의 한달 수입이 50만원미만이 52.9%를 차지하여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구조를 단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표 3-32> 남편의 수입정도 (배우자 학력별)



이밖에 50~59만원이 6.9%, 60~69만원 7.1%, 70만원 이상이 8.6%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지난 91년 장애인 실태 조사보고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20만원미만이 19.9%, 30만원미만이 31.7%, 40만원미만이 46.5%로 절대소득액과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를 고려할때 평균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비장애인 가구와 비교해 볼때 비장애인은 30만원미만이 10.0%이며, 30~39만원 8.1%, 40~49만원 10.1%, 50~59만원 14.9%, 60~69만원 12.6%, 70만원이상 44.3%로 나타나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조사한 전체장애인 가구별 소득수준에 관련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463,000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9만원 이하의 극빈가구는 22.5%로 나타났고 4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는 전체응답자중 42.5%를 나타내고 있어 장애인가구의 경제생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연령별 분석

연령별로 남편들의 한달수입을 분석해 보면 30만원 미만의 경우 경력이 짧은 젊은층이 작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35~39세의 배우자 남편의 경우 30만원 미만이 40.6%를 차지하고, 40세이상의 배우자 남편의 경우도 36.1%를 차지 25세 미만의 배우자 남편의 25.7%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는 70만원 이상의 월수익이 보장된 경우도 25~30세의 배우자 남편이 15.9%를 차지한 반면 40세이상의 배우자 남편은 6.0%에 불과하여 나이가 많은 장애인의 경우 전문직에 종사하지 못하고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을것과 같이 월수익도 같은 비율을 나타냈다.

### 학력별 분석

무학의 배우자 남편은 한달수입정도가 40만원 미만이 5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졸의 배우자 남편은 40만원대가 11.8%이었다.



또한 전문대졸의 배우자 남편 52.2%가 60만원 이상의 수입이었고 대졸배우자 남편은 70만원 이상이 33.3%에 이르렀다.

### 지역별 분석

남편의 한달수입의 경우 농·어촌 배우자는 30만원 미만이 42.9%, 중소도시는 35.2%, 대도시는 21.1%를 차지했으며 50~59만원은 농·어촌이 6.0%, 중소도시 7.3%, 대도시 8.1%, 70만원 이상은 농·어촌이 4.7%, 중소도시가 0%, 대도시가 12.0%를 차지했다.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의 수입이 중소도시보다 중소도시의 남편은 농·어촌보다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의 어려움 정도는 대도시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 설문문항 13번과 서로 상반된 것은 대도시의 물가와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항목들이 많은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858명의 응답자 가운데 301이명이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배우자들은 70만원 이상이 전혀 없고 60~69만원선은 9.0%이었다.

## 17. 남편이 일하는 곳

귀하 남편이 일하고 있는 곳은 주로 비장애인과 같이 일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곳입니까?

- |                       |         |
|-----------------------|---------|
| 1) 일반인과 함께 일하는 곳..... | (32.4%) |
| 2) 주로 장애인이 일하는 곳..... | (11.2%) |
| 3) 혼자 일한다.....        | (21.2%) |
| 4) 기 타.....           | (15.2%) |
| 5) 무응답.....           | (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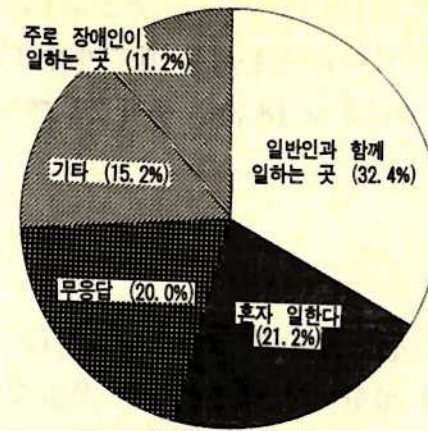
### 전체 분석

남편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들에게 현재 남편의 직장의 성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반인과 함께 일하는 곳"이 32.4%로 나타났으며 "주로 장애인이 일하는 곳"이라고 응답한 율은 11.2%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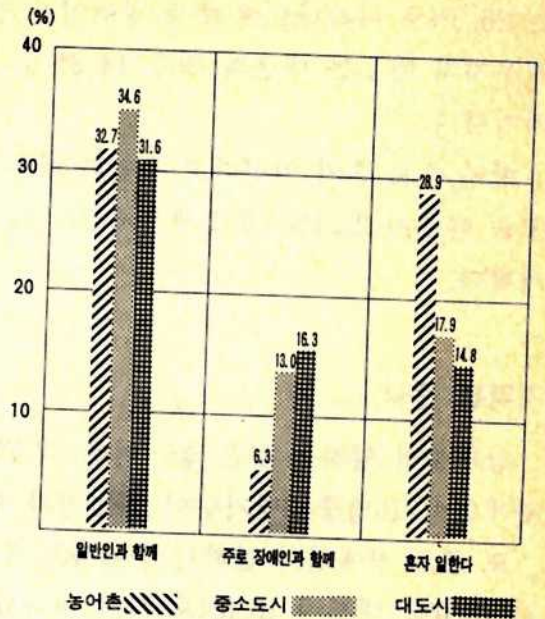
반면 21.1%가 "혼자 일한다"고 응답하여 소규모 자영업이나 판매직에 종사

한 남편들은 대부분 혼자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3> 남편이 일하는 곳



<표 3-34> 남편이 일하는 곳 (지역별)



특히 농어촌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나 전문대를 졸업한 배우자 남편의 경우가 혼자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및 전문대를 졸업한 배우자 남편은 일반인과 함께 일하는 비율이 높아 고학력의 배우자를 둔 남편의 학력도 고학력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연령별 분석

25~30세 배우자들의 남편중 52.4%가 일반인과 함께 일하는 곳에서 종사한다고 밝혔으며 26.2%가 혼자 일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35세 미만의 배우자 남편들은 30%가 훨씬 능가하여 일반인과 함께 일하는 곳에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나 35세 이후 배우자 남편은 일반인과 함께 일하는 직업이 30% 미만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나이가 많은 지체장애인 남편들은 직업이 없거나 주로 장애인이 일하는 곳이나 혼자 일하는 곳에 종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학력별 분석

일반인과 함께 일한다고 응답한 대졸 배우자의 경우는 47.6%, 고졸의 배우자는 26.3%로 나타났으며 주로 장애인이 일하는 곳에서 남편이 일한다고 응답한 배우자의 경우는 대졸의 경우 14.3%를 차지하였으며 고졸의 경우도 14.2%를 차지했다.

반면 주로 혼자 일한다고 응답한 배우자의 학력은 전문대졸 배우자가 30.4% 고졸 배우자 22.1%, 중졸배우자 21.7%, 국졸배우자 18.3%, 무학 29.2%로 집계됐다.

### 지역별 분석

남편들이 일하는 곳은 농·어촌(32.7%), 중소도시(34.6%), 대도시(31.6%) 관계없이 10명중 3명가량이 일반인과 함께 일한다고 배우자들은 응답했다.

또 주로 장애인이 일하는 곳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농·어촌이 6.3%, 중소도시 13.0%, 대도시 16.3%로 각각 나타났으며 주로 혼자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농·어촌이 28.9%, 중소도시는 17.9%, 대도시는 14.8%로 각각 나타났

다. 이처럼 농·어촌에는 주로 혼자일하는 경우가 많고 대도시일수록, 혼자 또는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일반인과 함께 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농·어촌등 소도시일 경우 장애인끼리 함께 일할수 있는 공동작업장이나 사업장이 없어 주로 혼자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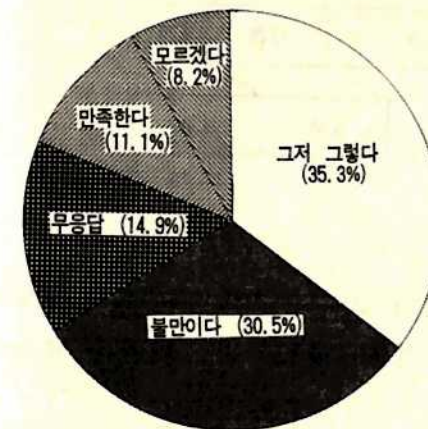
## 18. 남편 직업에 대한 만족도

귀하 남편의 현재 직업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이십니까?

1) 만족한다	(11.1%)
2) 그저 그렇다	(35.3%)
3) 불만이다	(30.5%)
4) 모르겠다	(8.2%)
5) 무응답	(14.9%)

### 전체 분석

<표 3-35> 남편직업에 대한 만족도



“남편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30.5%가 불만이라고 응답했으며 11.1%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 문항에서 그저 그렇다가 35.3%를 차지했는데 이러한 애매한 욕구표현은 장애 남편의 직업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뒷바침될 경우에는 만족하는 성향으로 볼수 있으나 여기서 “그저 그렇다”는 “불만”의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듯 싶다.

### 연령별 분석

남편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25~29세 배우자들은 15.9%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40세 이상의 배우자들은 8.8%, 25세 미만의 배우자들은 11.4%가 만족한다고 응답, 나이가 많을수록 남편의 직업에 불만이 컸고 나이가 어린 20대 배우자들은 아직도 남편의 직업등에 확실한 가치성을 부여하거나 장애인의 남편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 된다.



남편의 직업에 크게 불만을 터트린 40세 이상의 배우자들은 35.8%가 불만이라고 적극 의사표현을 했고 나이가 젊어질수록 차츰 그 빈도가 약하여 35~39세는 27.8%, 30~34세 27.2%, 25~29세 23.8%, 25세이하 22.1%를 응답했다.

<표 3-36> 남편직업에 대한 만족도 (학력별)

	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이다		무응답
무학	4.6%	24.6%	44.6%	12.3%	13.8%
국졸	10.8%	31.5%	31.4%	7.9%	17.9%
중졸	8.3%	39.4%	30.7%	8.7%	13.0%
고졸	14.2%	40.7%	27.9%	6.4%	10.8%
전문대졸	26.1%	30.4%	21.7%	13.0%	8.7%
대졸	28.6%		42.9%	14.3%	14.3%

### 학력별 분석

남편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학력별로 확연히 드러나 무학의 경우 만족도는 4.6%, 국졸 10.8% 중졸 8.3%, 고졸 14.2%, 전문대졸 26.1%, 대졸의 배우자 경우 28.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불만은 무학이 44.6%, 국졸 31.4%, 중졸 30.7% 고졸 27.9%, 전문대졸 21.7%, 대졸 14.3%라고 응답하였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무학의 경우 24.6%, 국졸 31.5%, 중졸 39.4%, 고졸 40.7%, 전문대졸 30.4%, 대졸은 42.9%를 차지했다.

### 지역별 분석

남편의 현재 직업에 대해 배우자들의 만족도는 극히 낮아 농·어촌이 9.7%,

중소도시는 10.3%, 대도시는 14.8%의 배우자들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남편의 직업이 불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농·어촌이 33.3%, 중소도시 28.9%, 대도시 29.2%의 배우자들이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일수록 남편의 직업에 만족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설문 문항 18번에서 처럼 대도시 남편의 직업이 사무·전문직이나 회사원등 상대적으로 농·어촌이나 중소도시보다 많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19. 소득과 생활

귀하는 현재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십니까?

- 1) 풍족하고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다 ..... ( 2.0%)
- 2) 다소 여유가 있다 ..... ( 4.8%)
- 3) 보통이다 ..... (23.0%)
- 4) 조금 부족하고 생활이 어려운편이다..... (27.6%)
- 5) 생활이 매우 어렵다 ..... (38.8%)
- 6) 잘 모르겠다 ..... ( 1.6%)
- 6) 무응답 ..... ( 2.0%)

### 전체 분석

배우자들은 “현재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느냐”란 질문에 38.8%가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응답 했으며 “생활이 어려운 편이다”라고 대답한 배우자들도 27.6%나 되었다.

“풍족하고 여유있게 생활할수 있다”고 응답한 배우자들은 단지 2.0%에 불과하고 4.8의 배우자들은 “다소 여유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배우자는 23.0%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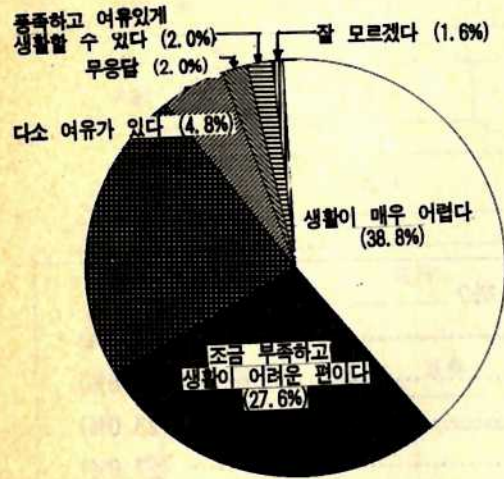
특히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으며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일수록 소득에 비해 생활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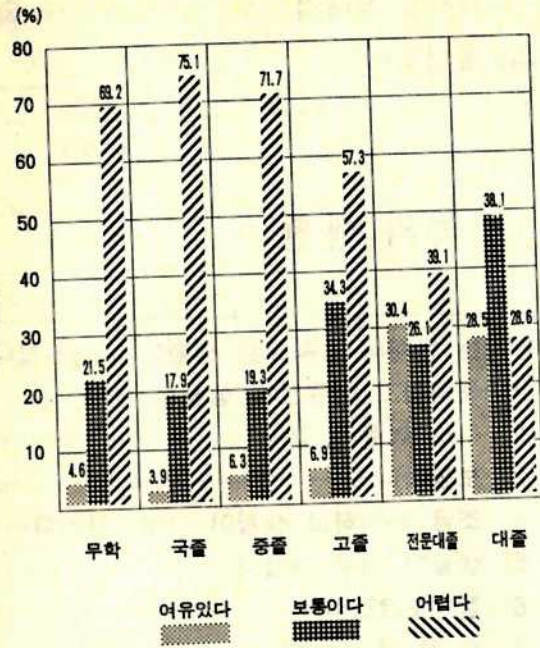


자가 대졸인 가구에서는 “풍족하고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다” 9.5%, “다소여유가 있다” 19.0%, “보통이다”라고 38.1%가 응답,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높은것을 증명하고 있다.

<표 3-37> 생활의 정도



<표 3-38> 학력별 소득과 생활



연령별 분석

현재의 소득으로 인한 생활정도는 나이가 많은 가구일수록 어려움이 동반된 것으로 집계됐다.

즉 생활이 매우 어렵거나 다소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것을 합하여 살펴보면 25세미만 배우자 가구는 42.9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25~29세 47.6%, 30~34세 65.5%, 35~39세 67.9%. 40세 이상은 72.9%가 생활의 어려움을 각각 호소했다.

반면 풍족하거나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25세미만 배우자는 5.8%, 25~29세 14.3%, 30~34세 7.4%, 35~39세 6.4%, 40세 이상 5.3% 각각 나타났다.

또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5세미만 40%, 25~29세 36.5%, 30~34세

26.5%, 35~39세 23.5%, 40세이상 17.8%로 각각 응답했다.

이처럼 나이가 많을 수록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가족이 많거나 자녀들이 성장, 학생들로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등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후천적 장애로인한 후유증이 나이가 들수록 심해져 약값으로 지출되고 있는 가정도 상당히 많은것으로 분석된다.

학력별 분석

현재의 소득으로 인한 생활의 정도는 학력에 따라 구분이 확실히 드러나 보였다.

즉 생활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무학의 배우자는 69.2%, 국졸 74.5%, 중졸 71.7%, 고졸 57.3%, 전문대졸 39.1%, 대졸 28.6%로 나타났다.

반면 풍족하거나 다소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졸의 배우자의 경우 28.5%, 전문대졸 30.4%, 고졸 6.9%, 중졸 6.3%, 국졸 3.9%, 무학 4.6%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

지체장애인이 남편인 가구에서 현재의 소득으로 생활의 정도는 농·어촌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응답한 배우자는 66.4%, 중소도시 배우자는 67.1%, 대도시 배우자 71.3%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의 배우자 6.9%, 중소도시 배우자 7.0%, 대도시 배우자 6.7%만이 다소여유가 있거나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통이라고 응답한 배우자는 농·어촌 가구가 23.6%, 중소도시가구는 25.9%, 대도시는 18.7%로 각각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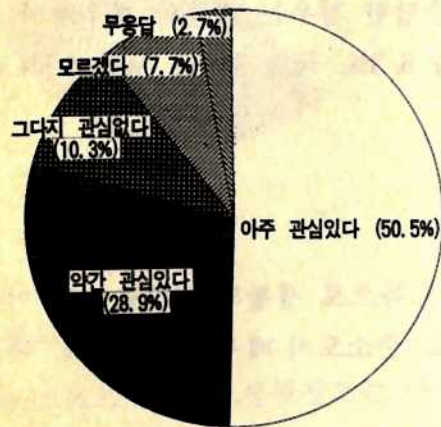
## 20. 장애인 복지의 관심정도

귀하께서는 장애인 복지에 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 1) 아주 관심있다 ..... (50.5%)
- 2) 약간 관심있다 ..... (28.9%)
- 3) 그다지 관심없다 ..... (10.3%)
- 4) 모르겠다 ..... (7.7%)
- 5) 무응답 ..... (2.7%)

### 전체 분석

〈표 3-39〉 배우자의 장애인 복지의 관심



지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들에게 “장애인 복지에 관해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란 질문에 50.5%가 “아주 관심 있다”고 응답했으며 “약간 관심있다” 28.9%, “그다지 관심없다” 10.3%가 응답, 장애인 복지에 관해 배우자들 절대 다수가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무학의 배우자와 25세 미만의 배우자, 전문대를 졸업한 배우자는 각각 30.8%와

25.7%, 17.4%가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해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 연령별 분석

25세 미만의 배우자들은 장애인 복지의 관심의 정도가 낮아 25.7%가 “그다지 관심이 없다” 20.0%는 “약간 관심있다”라고 표명한 반면 25~29세 배우자는 9.5%만이 “그다지 관심없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0.3%가 “아주 관심있다” 27.0%는 “약간 관심있다”라고 응답,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배우자들은 자신의 장애와 남편의 장애로 인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중 51.2%가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던 30~34세 이하의 응답에서는 “아주 관심있다” 51.9%, “약간 관심있다” 31.5%, “그다지 관심없다” 11.1%로 응답, 평균적인 관심사보다 좀더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0〉 배우자연령별 장애인 복지 관심정도

연령	아주 관심있다	약간 관심있다	그다지 관심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25세미만	40.0%	20.0%	25.7%	14.3%	
25~29세	60.3%		27.0%	9.5%	3.2%
30~34세	51.9%		31.5%	11.1%	3.1%
35~39세	51.9%		27.3%	10.7%	8.0%
40세이상	49.6%		30.1%	8.5%	9.5%

### 학력별 분석

무학의 배우자는 장애인복지에 대해 관심이 그다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0.8%에 이르고 전문대졸 배우자 17.4%도 관심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외에 배우자들은 대체로 80%를 훨씬 넘게 아주 관심있거나 약간의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 지역별 분석

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관계없이 배우자 전체적으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농·어촌 79.5%, 중소도시 85.0%, 대도시 73.7%의 배우자들이 아주 혹은



약간의 관심을 표명하고 중소도시 배우자중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3%였고 대도시 배우자 15.8%가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응답, 대조는 이루고 있다.

## 21. 배우자의 장애인 인식

귀하께서는 요즈음 신문·TV·라디오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문제에 관한 기사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주의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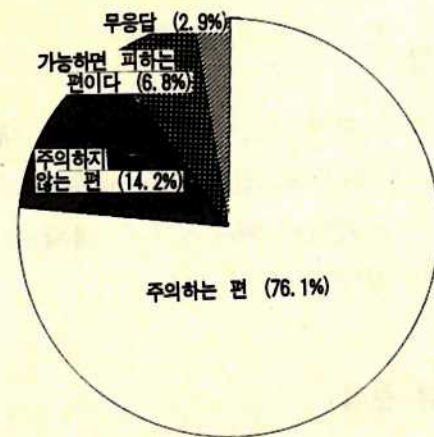
- 1) 주의하는 편 ..... (76.1%)
- 2) 주의하지 않는 편 ..... (14.2%)
- 3) 가능하면 피하는 편이다 ..... (6.8%)
- 4) 무응답 ..... (2.9%)

### 전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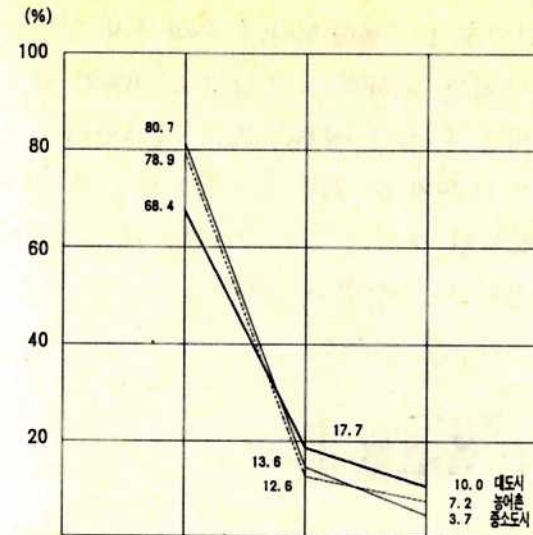
“요즈음 신문, TV, 라디오등에서 장애인문제에 관한 기사가 있을 경우에 주의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느냐”란 질문에 배우자들은 76.1%가 “주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14.2%가 “주의하지 않는 편”, “가능하면 피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배우자는 6.8%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배우자들의 장애인 문제에 항상 고민하며 문제해결 방안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표 3-41> 배우자의 장애인 인식



<표 3-42> 지역별 배우자 장애인 인식



### 연령별 분석

30~34세 82.1%의 배우자들은 “주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3.7%만이 “가능하면 피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35세 이상의 배우자들 75%이상이 언론이나 방송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나 57.1%가 장애가 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장애인 배우자의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25~29세 이하의 배우자들은 장애인

문제의 기사나 프로그램등에 23.8%가 “주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37.1%가 장애가 없다고 응답하여 가장 작은 비장애인 배우자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25세 미만의 배우자들도 62.9%미만이 “주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14.3%가 “주의하지 않는 편”, “가능하면 피한다”고 응답한 배우자가 무려 17.1%로 나타나 이들 배우자들은 남편의 장애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학력별 분석

장애인 복지의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무학의 배우자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 “가능하면 피하는 편” (21.5%)이라고 응답하고 일부러 “주의하지 않는 편”도 24.6%에 달해 장애인 복지와 남편 또는 본인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졸의 배우자의 경우 77.1%가 “주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졸의 배우자도 81.9%, 고졸 배우자 79.9%, 전문대졸 69.6%, 대졸의 배우자의 경우 71.4%가 주의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지역별 분석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일수록 장애관련 기사나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도시 배우자 10.0%가 가능하면 외면하고 17.7%배우자가 주의하지 않는다 고 응답, 중소도시의 배우자 3.3%가 가능하면 피하다는 응답과 13.6%의 배우자가 주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대답한 비율의 차가 심한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도시 배우자 68.4%와 중소도시 배우자 80.7%, 농·어촌배우자 78.9%가 신문, TV, 라디오에서 장애인및 장애인 문제의 관한 기사나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 주의해서 그 내용을 알아본다고 응답했다.

22. 남편과 함께 외출할 경우 불편한점

귀하께서는 남편과 함께 외출할 경우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 ..... (35.1%)
- 2) 주위 사람들의 시선 ..... (19.8%)
- 3) 편의시설의 부족 ..... (19.3%)
- 4) 일반인의 도움부족 ..... ( 2.3%)
- 5) 동행 보호자 없어서 ..... ( 3.8%)
- 6) 잘 모르겠다 ..... ( 7.6%)
- 7) 기 타 ..... ( 7.7%)
- 8) 무 응 답 ..... (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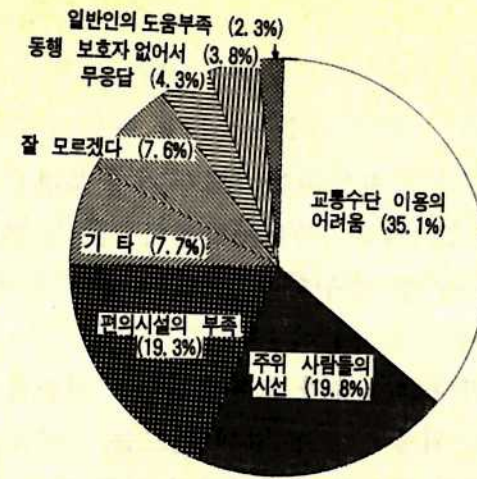
전체 분석

“남편과 함께 외출할 경우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이 35.1%, “주위 사람들의 시선” 19.8%, “편의시설 부족” 19.3%등으로 각각 응답했다. 이밖에 “동행 보호자 없어서” 3.8%, “일반인의 도움부족” 2.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과 지역 학력에 관계없이 부인들 10명중 2명은 주위사람들 시선때

문에 외출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와의 편견의 벽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3-43> 남편과 함께 외출할경우 불편한 점



단지 25세 미만의 배우자들은 주위사람들의 시선(11.4%)보다 동행보호자가 없어서(17.1%) 외출할 경우 가장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시의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장애유형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외출할때 가장 불편한 점은 역시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36.3%)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위사람

<표 3-44> 남편과 외출할 경우 애로사항 (지역별)

지역	교통이용의 어려움	사람들의 시선	편의시설부족	도움부족	동행보호자 없어서	잘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농·어촌	37.1%	20.4%	15.1%	2.8%	2.8%	10.7%	6.4%	4.7%
중소도시	32.9%	21.6%	24.6%	1.7%	2.0%	5.3%	9.0%	3.0%
대도시	36.8%	17.7%	18.7%	1.9%	7.7%	6.7%	7.7%	2.9%

들의 시선(17.7%) 및 편의시설의 부족(12.7%), 일반인의 도움부족(9.4%), 동행보호자가 없을 경우(6.8%) 등의 순으로 불편한 점이 나타났다.



여기서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44.1%), 주위사람의 시선(18.5%), 편의시설 부족(15%), 일반인의 도움부족(4.6%), 동행보호자 부재(3.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체장애인 남편과 함께 부인이 외출할 경우 불편한 점이 일치하고 있다.

#### 연령별 분석

“교통수단의 어려움에 대해 40세 이상 배우자들은 38.8%가 가장 불편한 사항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5~39세 배우자 22.5%는 “주위사람들의 시선”, 30~34세 배우자 24.7%가 편의시설부족, 25세미만 배우자 17.1%는 “동행 보호자가 없어서” 가장불편한 점이라고 꼬집었다.

나이가 많은 층을 살펴보면 외출을 꺼리는 이유가 교통수단의 어려움을 크게 지적한 것과 함께 주위사람들의 시선도 외출을 할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크게 부각된 것은 자신에 장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와 후천적 장애가 많은 지체장애의 경우 특히 아직도 자신들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주위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5세 미만의 배우자들은 주위사람들의 시선이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11.4%만이 응답했고, 25~29세 이하 배우자들도 17.5%만이 이처럼 응답,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 분석

교통수단의 어려움이 외출할때 가장 불편한 경우로 지적되고 있는데 국졸의 배우자는 46.9%가 지적을 하였으며 대졸의 배우자 경우는 23.8%만이 지적했다.

그러나 대졸의 배우자 19.0%가 주위사람들의 시선으로 외출할때 불편하다고 응답했으며 중졸의 배우자도 23.2%, 고졸 배우자 22.5%, 국졸의 배우자 21.5%도 주위사람들의 눈총을 꺼려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대졸 배우자 26.1%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3.0%는 동행보호자가 없어서 외출할때 불편하다고 대답했다.

#### 지역별 분석

남편과 외출할 경우 불편한 점은 농·어촌 대도시 모든곳에서 교통수단의 어려움은 호소했으며 주위사람들의 시선때문에 남편과 함께 외출을 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통에 대한 지적과 함께 편의시설의 부족도 지적, 배우자들이 남편과 동반외출을 할때 물리적제약과 사회적제약이 동시에 압박을 주고 있어 외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배우자의 37.1%가 교통수단의 어려움을 중소도시배우자 21.6%는 주위사람들의 시선과 24.6%의 배우자도 편의시설 부족을 지적했고 대도시 배우자 7.3%가 동행보호자가 없어서 남편과 함께 외출할때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 23. 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장애인 인식

귀하께서는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일반인과 전혀 차별없이 대한다..... | ( 9.1%) |
| 2) 동정적으로 대한다.....        | (21.6%) |
| 3) 그저 그렇다.....           | (17.8%) |
| 4)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  | (31.1%) |
| 5) 강한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   | (12.6%) |
| 6) 잘 모르겠다.....           | ( 5.7%) |
| 7) 무응답.....              | ( 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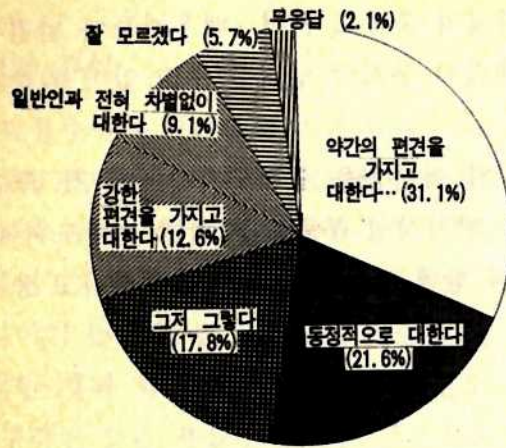
#### 전체 분석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고 응답한 배우자들은 31.1%를 차지했으며, “동정적”이라고 응답한 배우자도 21.6%, “강한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고 대답한 배우자도 12.6%를 차지, 전체의 65.3%의 배우자들은 일반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그저 그렇다”가 17.8%, “일반인과 전혀 차별 없이 대한다”가 9.1%, “잘 모르겠다” 5.7%, “무응답”이 2.1%를 차지했다.

한편, 장애인이 느끼고 있는 일  
 <표 3-45> 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장애인 인식 반인의 편견을 장애유형별로 살펴 보면 시각장애인 68.7%, 정신지체인 63.2%, 지체장애인 55.9%, 청각장애인 54%, 음성언어장애인 38.1%등의 순으로 일반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90년 조사한 자료에서 나타난것으로 전체 장애인 응답자중 4.7%만이 일반인과 차별없이 대한다고 응답한 반

<표 3-46> 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장애인 인식 (연령별)

	차별이 없다	동정적	그저그렇다	약간의 편견	강한편견	잘 모르겠다
25세미만	5.7%	14.3%	22.9%	25.7%	14.3%	17.1%
25~29세	11.1%	22.2%	11.1%	34.9%	15.9%	3.2%
30~34세	9.3%	22.2%	21.0%	30.2%	11.7%	4.9%
35~39세	7.0%	22.5%	16.6%	32.6%	15.0%	5.3%
40세이상	10.0%	21.6%	17.8%	31.6%	11.5%	5.8%

면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 혹은 강한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는 응답자는

59.4%로 나타났다.

### 연령별 분석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은 나이에 관계없이 대체로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응답자중 25세 미만의 배우자 14.3%만이 “동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부분의 배우자 20%이상이 동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 학력별 분석

고학력인 전문대를 졸업한 배우자와 대졸의 배우자들은 일반인과 전혀 차별 없이 대한다는 인식이 각각 21.7%와 14.3%로 나타난 반면 무학의 배우자는 4.6%, 국졸 7.9%, 중졸 11.8%, 고졸 6.9%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무학의 배우자의 경우 46.2%, 국졸 52.2%, 중졸 44.9%, 고졸 46.6%, 전문대졸 30.6%, 대졸 52.3%로 나타났다.

또한 동정적으로 대한다는 대답도 무학의 배우자는 24.6%, 국졸 19.4%, 중졸 22.8%, 고졸 23.5%, 전문대졸 17.4%, 대졸의 배우자는 19.0%로 나타났다.

### 지역별 분석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시각과 관련 약간 혹은 강한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고 생각하는 배우자는 농·어촌 51.2%, 중소도시 46.8%, 대도시 41.6%로 각각 나타났다.

농·어촌과 대도시가 약10%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배우자들이 일반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동정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한다는 배우자는 모두 20%를 웃돌았으며 일반인과 전혀 차별없이 대한다는 배우자도 지역연고지에 관계없이 10%미만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일반인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과 또 일반인이 갖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골이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24. 장애인 사회·문화·환경 개선 욕구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사회 문화적 환경개선을 위하여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편견·차별의식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 (44.9%)
- 2) 공공시설 개선 및 물리적 편의시설 확충 ..... (15.0%)
- 3)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전문 상담기관 개설 ..... (8.7%)
- 4) 결혼 상담 및 알선 ..... (3.5%)
- 5)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공간 시설 및 확충 ..... (5.6%)
- 6) 장애인을 위한 교통 법규 개선 ..... (11.0%)
- 7) 기 타 ..... (8.7%)
- 8) 무 응 답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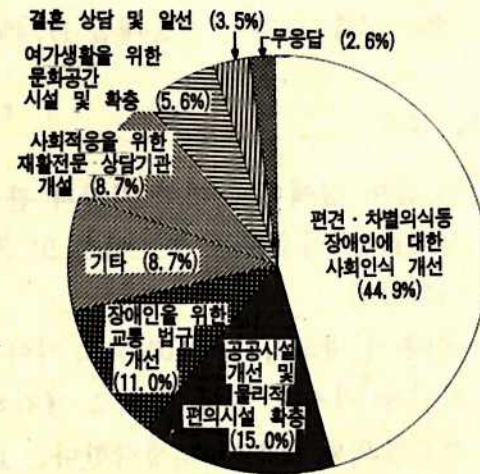
### 전체 분석

“장애인의 사회 문화적 환경개선을 위하여 무엇이 가장 필요하느냐”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4.9%가 “편견 차별의식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꼽았으며, 그 다음은 공공시설 개조 및 물리적 편의시설 확충(15.0%)과 장애인을 위한 교통 법규 개선(11.0%)등을 개선해야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전문 상담기관 개설(8.7%)과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공간 신설 및 확충(5.6%), 그리고 결혼 상담 및 알선(3.5%)을 꼽았다.

이와같은 유형의 욕구는 장애인 이용시설과 각 관련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편견, 차별의식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표 3-47> 사회·문화·환경개선 욕구사항



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그다음은 공공편의시설 개조 및 물리적 편의시설 확충,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전문 상담기관 개설, 장애인을 위한 교통법규의 제정,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공간 신설 및 확충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8> 연령별 장애인 사회·문화·환경개선 욕구

연령	사회인식개선	편의시설 확충	재활전문 기관개설	결혼상담및 알선	문화공간 확충	교통법규 개선	기타
25세미만	20.0%	11.4%	8.6%	28.6%	8.6%	5.7%	17.1%
25~29세	36.5%		25.4%	11.1%	12.7%	9.5%	4.8%
30~34세	42.6%		17.9%	10.5%	5.6%	5.6%	6.8% 10.5%
35~39세	46.5%		12.7%	8.0%	4.8%	6.4%	11.2% 9.1%
40세이상	49.6%		14.0%	8.3%	0.5%	4.0%	13.3% 7.8%

이는 장애인들이 가장 우선순위의 욕구인 경제적 복지와 함께 최근 사회심리적복지, 문화적복지의 수준도 향상되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 연령별 분석

연령별로 가장 높은 욕구순으로 열거하면 40세이상의 배우자 49.6%는 “편견 차별의식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35~39세 배우자 11.2%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법규 개선”, 30~34세 배우자 10.5%는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전문 상담기관 개설”, 25~29세 배우자 25.4%는 “공공시설 개조 및 물리적 편의시설 확충을 지적 하였으며, 25세 미만의 배우자 28.6%가 “결혼 상담 및 알선”을 지적했다.

배우자들의 욕구 분포를 분석해 보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보다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확충이나 재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세 배우자들은 사회인식개선(20.0%)보다 결혼상담등을 높게 반영, 최근에 가장 심각했던 고충을 그대로 나타낸것으로 보여 결혼의 어려움은 단적으로 표현했다.

### 학력별 분석

장애인의 사회 문화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학력에 관계없이 편견 차별의식 등 장애인이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대해 40%이상의 응답율을 보여 크게 강조 또는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공시설등의 물리적 편의시설 확충을 꼬집었으며 무학, 국졸, 중졸의 배우자들은 또 장애인을 위한 교통법규 개설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문대와 대학을 졸업한 배우자들은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공간 신설 및 확충을 요청하였으며 결혼상담및 알선도 장애인의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 지역별 분석

장애인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개선은 농촌이나 대도시 관계없이 장애인 개개인 그리고 가족의 욕구 분포는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편견 차별의식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농촌과(47.2%), 중소도시(45.2%), 대도시(43.5%) 모두가 엇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욕구순위도 사회인식 개선에 이어 물리적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교통법규 개설,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전문 상담기관 개설등의 순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5.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느낌

귀하께서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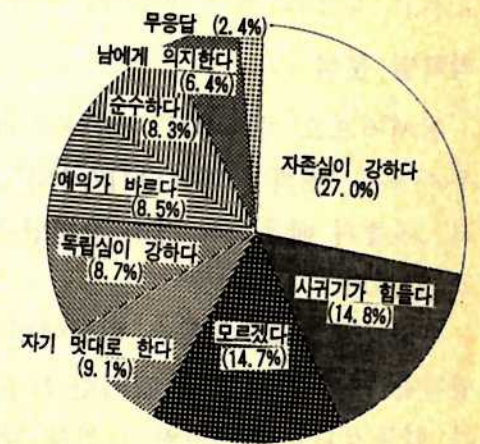
1) 예의가 바르다 .....	( 8.5%)
2) 자기 멋대로 한다 .....	( 9.1%)
3) 자존심이 강하다 .....	(27.0%)
4) 사귀기가 힘들다 .....	(14.8%)
5) 순수하다 .....	( 8.3%)
6) 남에게 의지한다 .....	( 6.4%)
7) 독립심이 강하다 .....	( 8.7%)
8) 모르겠다 .....	(14.7%)
9) 무응답 .....	( 2.4%)

### 전체 분석

배우자들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7.0%가 “자존심이 강하다”, 14.8%가 “사귀기가 힘들다”, “자기 멋대로 한다” 9.1%, “남에게 의지한다”라고 6.4%가 응답, 대부분의 배우자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의 느낌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반면, “독립심이 강하다”고 응답한 배우자는 8.7%, “예의가 바르다”는 8.5%, “순수하다”고 생각할것이라고 추정하는 배우자는 8.3%로 응답, 25.5%만이 긍정적인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표 3-49〉 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느낌





### 연령별 분석

25세 미만의 배우자들은 “예의가 바르고 (14.3%)” “독립성이 강하다 (14.3%)”고 응답 하였으며, 34~39세 배우자는 “순수하다 (10.2%)”고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30~34세 이하의 배우자들은 “자존심이 강하다 (30.9%)” “사귀기가 힘들다 (19.8%)”고 응답, 부정적인 장애인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표 3-50〉 배우자가 생각하는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느낌 (연령별)

	예의가 바르다	멋대로 한다	자존심이 강하다	사귀기가 힘들다	순수하다	의지하려 한다	독립성이 강하다	모르겠다	기타
25세미만	14.3%	5.7%	22.9%	14.3%	5.7%	2.9%	14.3%	20.0%	
25~29세	9.5%	7.9%	27.0%	14.3%	9.5%		12.7%	9.5%	9.5%
30~34세	4.9%	8.0%	30.9%	19.8%	7.4%	7.4%	8.6%	12.3%	
35~39세	9.6%	10.2%	25.7%	15.5%	10.2%	5.3%	5.9%	16.0%	
40세이상	8.5%	9.8%	27.3%	13.0%	7.8%	6.0%	8.8%	15.3%	2.5%

### 학력별 분석

전체적으로 자존심이 강하다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으나 전문대를 졸업한 배우자들은 “예의가 바르다 (17.4%)”, “순수하다 (21.7%)”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고, 대졸의 배우자의 경우 장애인에 “자기 멋대로 한다 (14.3%)”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특히, 고졸배우자들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순수하다 (5.9%)”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을 것이란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로 인해 “사귀기가 힘들것 (19.1%)”이란 느낌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마찬가지로 무학의 배우자도 “순수하다”라는 느낌은 4.6%에 불과하고 “사귀

기가 힘들다”는 20.0%의 응답율을 보여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응답은 아직도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갖는 편견과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골이 좁혀지지 않은채 큰 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같은 응답은 또 학력별 분포에서 부정적 시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고졸 배우자들은 41.7%가 지체장애인이며, 긍정적 시각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대졸 배우자들은 17.4%의 낮은 지체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를 갖고 있는 배우자들이 비장애인의 시각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지역별 분석

장애인은 자존심이 강하고 사귀기가 힘들어 자기멋대로 행동하는 그리고 남에게 의지하려하며 예의를 모른다고 생각할것으로 장애인 배우자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

자존심이 강할것으로 생각한다는 배우자들이 약30%를 차지하였으며 중소도시 배우자 18.9%는 사귀기도 힘들며, 농어촌 배우자 9.4%는 자기멋대로 행동할것으로 일반인은 생각할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대도시 배우자 8.6%는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며, 4.3%배우자만이 예의가 바르다고 응답, 응답자 대부분이 장애인에 대해 좋지 못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응답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장애인 자신의 대답이며 배우자 및 가족들도 남편 혹은 장애인에 대한 생각과 염려가 이와같은 결론일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 26. 자녀·친척의 장애인과 결혼 여부

귀하께서는 자녀나 친척이 장애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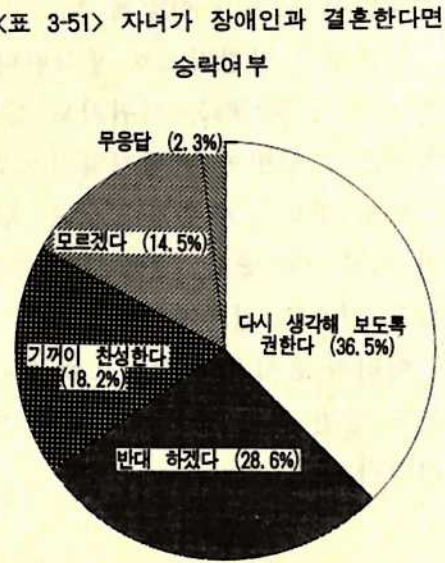
- 1) 기꺼이 찬성한다 ..... (18.2%)
- 2) 다시 생각해 보도록 권한다 ..... (36.5%)
- 3) 반대 하겠다 ..... (28.6%)
- 4) 모르겠다 ..... (14.5%)
- 5) 무응답 ..... (2.3%)

### 전체 분석

“자녀나 친척이 장애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8.6%가 “반대하겠다”라고 대답했으며, 36.5%의 배우자들은 다시 생각해 보도록 권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기꺼이 찬성하겠다”고 대답한 배우자는 18.2%에 불과했으며 “모르겠다”고 대답을 유보한 표현은 찬성하겠다는 의지보다 반대의 욕구가 강하다는 성향으로 볼수 있어 장애인과 결혼한 배우자 10명중 8명을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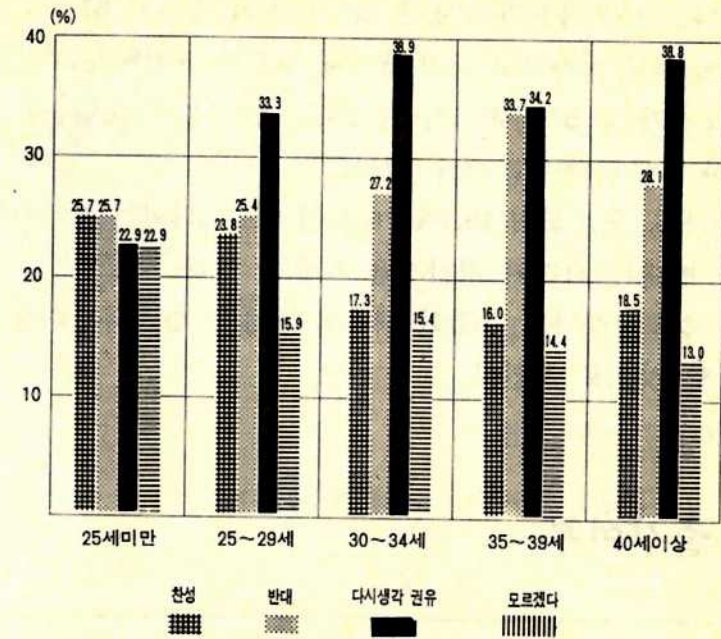
특히, 고학력, 낮은 연령, 대도시 거주 배우자들은 찬성의 뜻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을 제시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한번 자녀에게 다시 생각해 보도록 권한다”가 67.5%로 가장 많고 “기꺼이 찬성한다” 15.6%, “반대하겠다” 15.4%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태도와 마찬가지로 찬반유보내지는 반대표시가 높아 장애인과 결혼여부는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연령별 분석

“기꺼이 찬성하겠다”는 25세미만 배우자는 25.7%, 25~30세 배우자는 23.8%가 응답한 반면 30세이상의 배우자들은 20%를 훨씬 밑도는 응답율을 보였다.

〈표 3-52〉 자녀가 장애인과 결혼한다면 승락여부 (연령별)



특히, 30세이상의 배우자 66%이상이 반대 의견을 개진, 25~30세 배우자의 반대표명 58.7%와 25세 미만의 배우자 48.5%의 반대의사와는 크게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 학력별 분석

“자녀나 친척이 장애인과 결혼하겠다고 말한다면 기꺼이 찬성하겠다”는 응답은 대졸의 배우자는 38.1%, 전문대졸 배우자는 30.4%를 나타내 전체 응답율 18.2%의 2배에 달했다.

그러나 반대하거나 다시 생각해 보도록 권유한다는 응답은 무학의 배우자 경우 63.1%, 국졸은 65.6%, 중졸 71.1%, 고졸 64.2%, 전문대졸 52.1%, 대졸 42.8%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석

자녀나 친척이 장애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기꺼이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배우자는 농·어촌이 15.4%, 중소도시가 16.6%, 대도시가 23.9%로 대도시일수록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반대하겠다는 배우자들의 입장은 농·어촌의 경우가 31.4%, 중소도시 28.9%, 대도시 24.4%로 나타났고 다시 생각해 보도록 권한다는 배우자도 농촌이 39.3%, 중소도시가 38.5%, 대도시 32.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나 이는 반대의 의사가 뚜렷하다고 볼수 있다.

또한 농촌의 11.9%, 중소도시 15.0%, 대도시의 17.7%의 모르겠다의 응답도 찬성의 의견보다 반대의 의견의 강한것을 엿볼수 있다.

따라서 기꺼이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배우자 외에는 반대하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27. 장애아 출산여부

의학의 발달로 장애의 종류에 따라 태아의 단계에서 장애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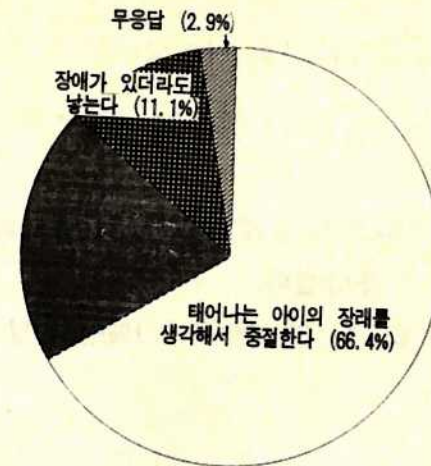
- 1) 장애가 있더라도 낳는다 ..... (11.1%)
- 2) 태어나는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중절한다 ..... (66.4%)
- 3) 모르겠다 ..... (19.6%)
- 4) 무응답 ..... (2.9%)

전체 분석

“의사가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면 귀하께서는 어떻게 할 것 같이나”란 질문에 “장애가 있더라도 낳는다”고 응답한 배우자는 11.1%를 차지한 반면 “태어나는 아이의 장애를 생각해서 중절한다”란 배우자는 66.4%를 차지했다.

또 “모르겠다”고 대답을 회피한 배우자도 19.6%로 나타나 결혼문제와 마찬가지로 반대의견개선 성향으로 충분히 간주할수 있어 장애아 출산은 10명의 배우자중 1명만이 출산하겠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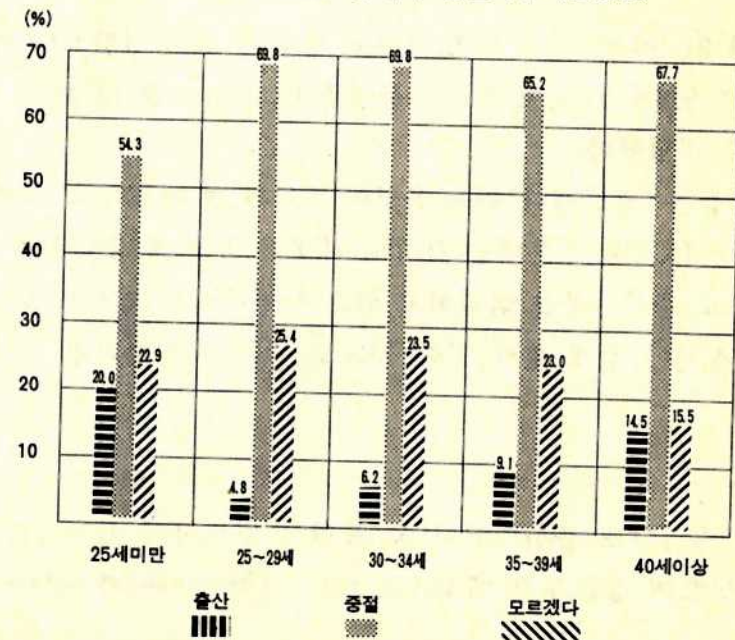
<표 3-53> 장애아 출산여부



특히, 배우자중 57.1%가 장애인이 아닌 25~29세 이하의 계층에서는 장애아 출산에 4.8%만이 낳겠다고 응답했으며 마찬가지로 지역별과 교육수준별 현황에서도 배우자중 각각 48.2%와 41.7%로 장애를 입지 않은 배우자와 고졸 배우자가 각각 6.6%, 6.4%만이 장애아 출산을 하겠다고 응답, 대부분 배우자는 중절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표 3-54> 장애아 출산여부 (연령별)



자는 18.2%가 장애가 있더라도 출산하겠다고 응답했으며, 25세 미만의 배우자는 20.0%, 무학의 배우자는 21.5%가 장애가 있더라도 중절하지 않고 출산하겠



다고 응답했다.

한편,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을 제시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태어나는 아이의 장애를 생각해서 중절한다는 견해가 전체의 82.4%를 차지하여 태아가 장애가 있을 경우 임신중절을 해야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장애가 있더라도 낳는다”의 응답율은 15.8%로 나타났다.

### 연령별 분석

25세 미만의 배우자 20.0%는 “장애가 있더라도 낳겠다”고 분명히 응답하고, 40세 이상의 배우자도 14.5%가 출산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25~29세 배우자 4.8%와, 30~34세 6.2%, 35~39세 9.1%만이 낳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 분석

무학의 배우자 21.5%는 “장애가 있더라도 낳겠다”고 응답했으나 국졸 배우자는 13.6%, 중졸 9.4%, 고졸 6.4%, 전문대졸 13.0%, 대졸 14.3%의 배우자들은 출산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외에 배우자들은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무학의 경우 32.3%, 국졸 21.1%, 중졸 19.7%, 고졸 15.2%, 전문대졸 21.7%, 대졸은 9.5%의 응답율을 보였으나 이들은 직접적으로 출산여부를 회피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정서로 보아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경향이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리란 진단이다.

### 지역별 분석

비록 “장애아 일지라도 출산하겠다”고 응답한 대도시의 배우자는 18.2%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배우자는 6.6%, 농·어촌 배우자는 11.3%로 나타났다.

반면 “태어나는 아이의 장애를 위해서 중절하겠다”는 배우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경우 62.9%, 중소도시 71.8%, 대도시 65.1%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배우자는 농촌이 23.3%, 중소도시 20.3%, 대도시 13.9%를 차지했다.

한편, 응답자 858명의 배우자중 기타지역에 살고 있는 15명의 응답은 80%가 중절하고 20%는 모르겠다고 응답, 장애아 출산을 절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28. 장애인을 위한 정책 요구

귀하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 1) 생활 보장 ..... (38.8%)
- 2)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비 ..... (7.9%)
- 3) 장애인 교육문제 해결 ..... (6.8%)
- 4) 장애인 복지기관 확충 ..... (12.6%)
- 5) 취업 보장 ..... (10.7%)
- 6) 장애인 차별대우 개선 ..... (6.1%)
- 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제거 ..... (5.0%)
- 8) 기 타 ..... (9.7%)
- 9) 무 응 답 ..... (2.4%)

### 전체 분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어떤일을 가장 먼저 해주었으면 하느냐”란 질문에 38.8%의 배우자들이 “생활보장”을 꼽았으며 12.6%가 장애인 복지기관을 확충해줄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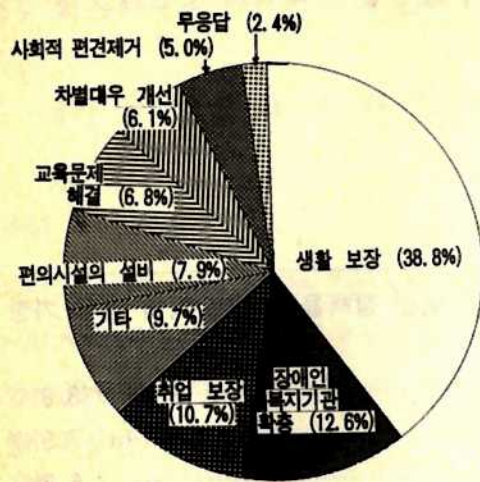
또한 전체 응답자의 10.7%가 “취업보장”을, 7.9%가 “편의시설의 설비”를 확충해 줄것을 요청했고, 응답자 전체의 6.8%가 “교육문제의 해결”을 우선지원해야 된다고 지적했으며, “차별대우 개선(6.1%)”과 “사회적 편견도 제거(5.0%)”되어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보장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 무학은 50.8%, 대졸은 19.0%로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대졸인 배우자는 “사회적 편견제거”를 23.8%가 요



구, 사회생활하는데 높은 턱이 없었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 3-55> 장애인을 위한 정책욕구



또 25세 미만이 배우자 경우도 다른 연령층이 요구하는 생활보장 우선보다 교육문제해결이 시급하다(14.3%)고 지적했다.

#### 연령별 분석

25세 미만의 배우자들은 “장애인 교육문제 해결 (14.3%)”과 “장애인 차별대우 개선 (11.4%)”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25~29세 배우자들은 “편의시설의 설비 (14.3%)”를 우선으로 정책에 반영

<표 3-56> 지역별 장애인을 위한 정책욕구

지역	생활보장	편의시설	교육문제	복지기관 확충	취업 보장	차별 개선	편견 제거	기타	무응답
농·어촌	42.5%	10.1%	8.5%	12.6%	9.6%	6.3%	3.8%	5.3%	
중소도시	28.9%	8.3%	6.6%	14.6%	5.6%	7.6%		14.3%	
대도시	49.8%	4.8%	4.8%	8.6%	12.0%	5.7%	3.3%	9.6%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0세 이상의 배우자들은 생활보장을 우선적으로 반영시켜야 된다면 30~34세는 38.9%, 35~39세 42.8%, 40세 이상 39.8%가 각각 응답했다.

#### 학력별 분석

지체장애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들의 정책 욕구의 가장 근본은 생활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무학의 배우자는 50.8%가 생활보장을 요구하였으며 국졸 배우자는 43.0%, 중졸 배우자는 39.0%, 고졸 배우자는 33.8%, 전문대졸 배우자는 34.8%, 대졸 배우자의 경우는 19.0%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의 차이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여 대졸 배우자의 경우는 생활보장 19.0%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반응이 23.8%로 높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선해야 장애인 복지가 앞당겨 질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대졸 배우자들은 각종 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비(19.0%)와 복지기관 확충(14.8%)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뒷바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중졸의 배우자와 고졸 배우자는 취업보장을 위한 응답도 각각 14.2%, 13.2%로 나타나난 반면 전체 응답자중 중졸의 배우자 29.6%와 고졸 배우자 23.8%인 절대 다수가 취업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적했다.

#### 지역별 분석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배우자 49.8%가 생활보장을 꼽았고 농·어촌 배우자 42.5%도 생활보장을 가장 시급한 정책적 과제로 꼽았으나 중소도시 배우자는 다소 낮은 28.9%가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시설 기관 확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농·어촌의 배우자는 12.6%, 중소도시 14.6%, 대도시 8.6%를 차지하였으며, 취업보장을 우선정책으로 꼽은 농·어촌의 배우자는 3.1%, 중소도시 12.3%, 대도시는 12.0%등을 차지했다.



## 29.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 수준

귀하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가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잘 되어 있다.....	( 3.1%)
2) 약간 되어 있는 편이다.....	(22.0%)
3) 그다지 되어 있지 못하다.....	(66.9%)
4) 모르겠다 .....	( 6.4%)
5) 무응답 .....	( 1.5%)

### 전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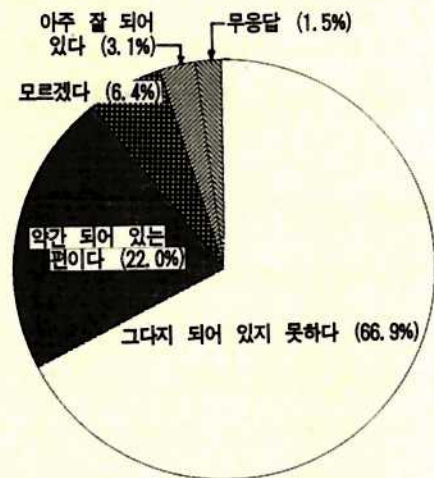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제도의 수준”에 대한 배우자의 의견은 응답자 전체의 66.9%가 “그다지 되어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22.0%는 “약간 되어 있는 편이다” 3.1%만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응답, 지체장애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들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가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의 복지제도나 복지정책 등 복지수준이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가구의 소득원중 남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8.8%에 불과하고, 30% 이상의 남편이 무직상태에 있으며,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월수입이 30만원 미만도 34.1%나 차지해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고 취업등 대안이 없는 것에 근거된것으로 분석된다.

### 연령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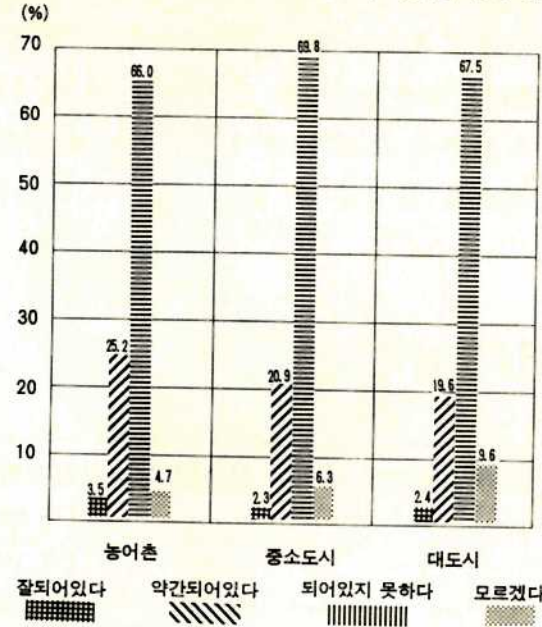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응답한 배우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5세 미만의 배우

<표 3-57>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



자는 11.4%, 25세이상의 배우자 전체는 5.0%미만으로 응답,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극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표 3-58>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수준 (지역별)



특히, 35~39세 배우자 73.3%가 잘못되어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40세이상의 배우자 67.7% 30~34세 배우자 66.7%도 우리나라 복지제도 수준을 낮게 평가했다.

### 학력별 분석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잘되어 있다고 응답한 배우자중 전문대를 졸업한 배우자의 경우 13.0%를 제외하고는 무학에서 대졸에 이르기까지 5.0%수준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복지수준이 열악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대학을 졸업한 배우자의 경우 81.0%외에 모두가 60.0%를 웃돌아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 모두 아직도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역별 분석

장애인 복지제도의 수준은 농·어촌 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배우자들 모두에게 느끼는 정도는 열악하다란 의식이 지배적이었다.

즉, “아주잘되어 있다”고 응답한 농·어촌 배우자와 대도시 배우자는 각각 3.5%, 2.4%로 나타났으며 복지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농·어촌 배우자 66.0%와 대도시 배우자 67.5%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약간되어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농·어촌이 25.2%, 중·소도시가 20.9%, 대도시가 19.6%로 약간의 차이로 대도시 일수록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괄목하게 성장한 것도 아니며 설문에 응답한 배우자들 모두가 결혼하여 사회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한 것이기때문에 장애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장애인복지제도의 미흡으로 연결지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약간되어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배우자들이 지역구분없이 전체적으로 20%수준으로 나타난것은 최근 장애인고용촉진법등 장애인 관련 법령들의 성과 여부와 상관없이 홍보가 되거나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제도의 흔적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30.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만족

귀하께서 정부의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만족스럽다 ..... ( 5.8%)
- 2) 다소 만족스럽다 ..... ( 7.1%)
- 3) 그저 그렇다 ..... (22.5%)
- 4) 다소 불만족스럽다 ..... (22.7%)
- 5) 불만족스럽다 ..... (33.6%)
- 6) 잘 모르겠다 ..... ( 5.8%)
- 7) 무응답 ..... ( 2.4%)

#### 전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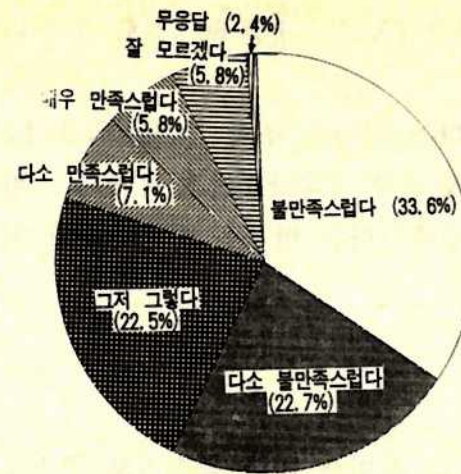
“정부의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배우자의 33.6%가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소 불만족”은 22.7%, “그저 그렇다” 22.5%로 나타나 대부분의 배우자들의 정부의 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응답배우자중 7.1%만이 “다소 만족스럽다”고 대답하였으며 5.8%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서울시가 지난 90년 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직업재활에 대해서 장애유형 구분없이 전체 장애

인 38.2%가 다소 불만족스럽거나 매우 불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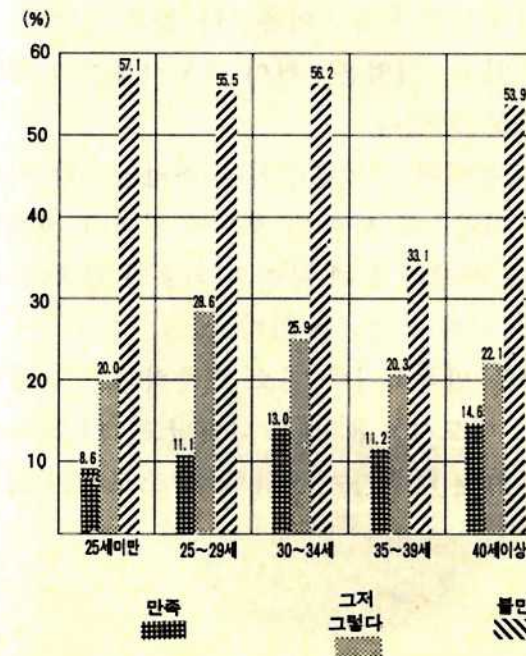
<표 3-59>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만족도



이처럼 장애인의 직업훈련이 만족스럽지 못한것은 직업훈련을 받아도 사회가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직업훈련 직종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불만족스럽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직업훈련 수준이 낮고, 훈련직종이 후진성이나 영세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부족도 불만족의 이유로 꼽혔다.

<표 3-60>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만족도(연령별)



#### 연령별 분석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만족도에 대해 25세 미만의 배우자는 57.1%가 불만을 터트렸고, 25~29세 배우자는 55.5%, 30~34세 56.2%, 35~39세 63.1%, 40세 이상은 53.9%가 불만스럽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25세 미만의 배우자의 경우 8.6%, 25~29세 10.1, 30~34세 13.0%, 35~39세 11.2%, 40세이상 14.6%가 만족하다고 응답했다.



### 학력별 분석

학력별 취업 알선의 만족도는 학력이 낮을수록 불만의 정도가 심하고 고학력일수록 다소 불만의 목소리가 누그러진 현상이 나타났다.

즉, “매우 불만 혹은 다소 불만스럽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무학 70.8%, 국졸 52.7%, 중졸 55.1%, 고졸 57.9%, 전문대졸 69.5%, 대졸 66.7%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만족하거나 다소 만족하다는 대답은 무학 7.7%, 국졸 16.8%, 중졸 13.4%, 고졸 9.8%, 전문대졸 13.0% 각각 나타났으며 만족하다는 반응은 대졸의 경우 전혀 응답이 없었고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은 한자리수에 머물렀다.

### 지역별 분석

대도시 배우자 일수록 만족도가 낮고 또 불만에 대한 목소리도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상대적으로 약간씩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밀집도가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높고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고, 직업훈련원이 대도시등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배우자들은 남편이나 혹은 본인이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의 서비스를 전혀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혹은 서비스를 받아본 경우에 결과에 관계없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만 불만의 비율과 만족의 비율이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즉, 농·어촌의 경우 배우자들은 매우 만족하거나 다소 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3%이며, 중소도시는 11.9%, 대도시는 8.1%로 나타났고, 다소 혹은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농·어촌 배우자는 60.6%, 중소도시는 56.1%, 대도시는 52.6%를 차지했다.

## 31. 장애인을 위한 법률의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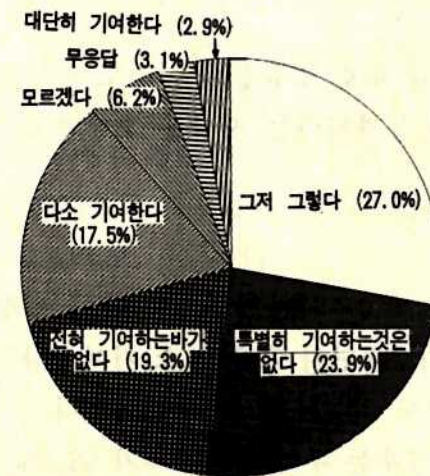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법률(장애인 복지법·장애인 고용촉진법·특수교육진흥법)들이 현재 장애인 복지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대단히 기여한다      | ( 2.9%) |
| 2) 다소 기여한다       | (17.5%) |
| 3) 그저 그렇다        | (27.0%) |
| 4) 특별히 기여하는것은 없다 | (23.9%) |
| 5) 전혀 기여하는바가 없다  | (19.3%) |
| 6) 모르겠다          | ( 6.2%) |
| 7) 무응답           | ( 3.1%) |

### 전체 분석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특수교육진흥법등 장애인을 위한 법률들이 현재 장애인복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2.9%의 배우자는 “대단히 기여한다” 17.5%의 배우자들은 “다소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표 3-61> 장애인을 위한 법률의 기여도 평가



반면 “특별히 기여하는 것은 없다”고 응답한 배우자는 23.9%를 차지하였으며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응답한 배우자도 19.3%를 차지했다.

또한 “그저 그렇다”고 대답한 배우자는 27.0%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배우자도 6.2%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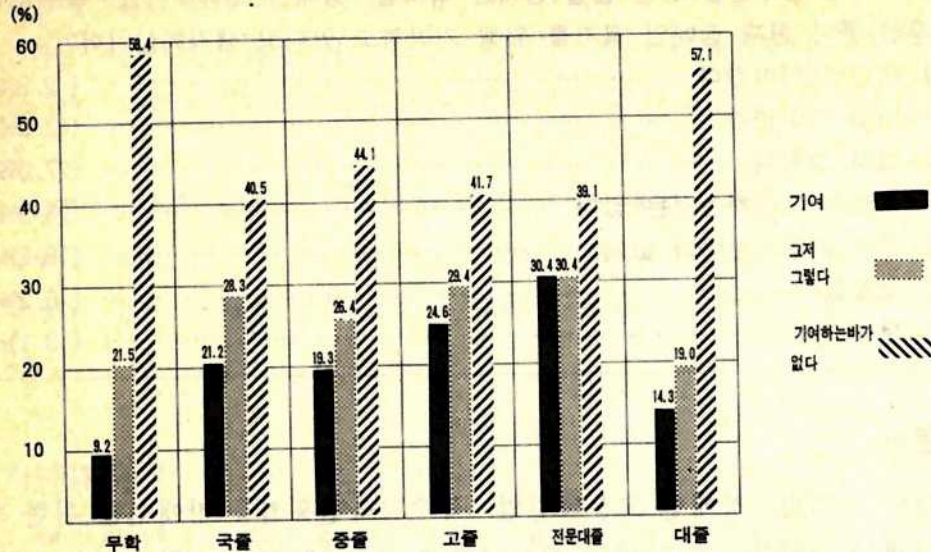
### 연령별 분석

장애인을 위한 법률들의 경우 25세미만의 배우자 5.7%가 “대단히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25세이상의 배우자 2~3%정도만이 "대단히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표 3-62〉 장애인을 위한 법률의 기여도 평가 (학력별)



또한 25~30세 배우자 22.2%가 "다소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비롯 13~20% 배우자들이 "다소 기여하고 있는것"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특별히 혹은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5세미만의 배우자 경우 40.0%, 25~29세 39.7%, 30~34세 44.5%, 35~39세 45.4%, 40세이상 43.6%가 각각 응답했다.

이는 대부분 장애인 및 가족들이 장애인을 위한 법률들이 아직도 장애인들에게 기여도가 낮아 형식이나 선언적의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 학력별 분석

장애인 관련 법령들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법령들이 장애인 복지를 위한 기여도는 20.0%정도가 "대단히 혹은 다소 기여한다"고 밝혔으며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배우자도 20.0~30.0%수준이었다.

그러나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무학의 배우자가 58.4%, 국졸 40.5%, 중졸 44.1%, 고졸 41.7%, 전문대졸 39.1%, 대졸 57.1%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반응은 장애인 관련 법령들에 대해 다소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배우자가 고르게 퍼져 있다는 반증이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장애인 관련 법령들이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이 피부로 느낄정도로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지역별 분석

장애인 관련 법규는 농·어촌 배우자 23%가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며, 24.5%는 "그저 그렇다", 44.7%가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중소도시의 배우자도 17.9%가 "기여하고 있다", 32.6%는 "그저 그렇다", 43.2%는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대도시 배우자 19.1%는 "기여하고 있다", 24.4%의 배우자는 "그저 그렇다", 42.6%의 배우자는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특별히 혹은 전혀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40%를 훨씬 웃돌고 있는 것은 장애관련 법령들의 시행이 미비하고 실효성있는 법안보다 전시적인 것으로 효과를 거둘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 이처럼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여한 측면도 17%~23%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24%~32%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관련 법령이 장애인 복지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법령들이 현실성 있고 또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강제력이 있는 법안으로 개정될때 비로소 장애인 관련 법령들에 의해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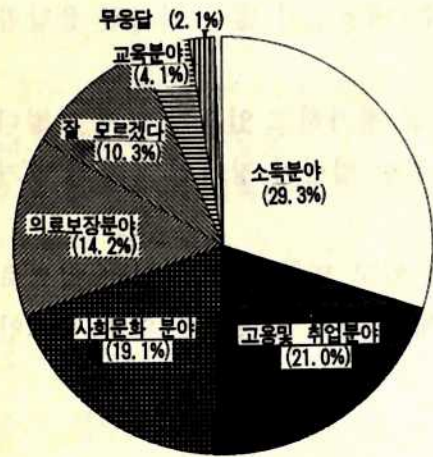
### 32. 장애인 관련 제도의 시급한 과제

귀하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 및 법률이 만들어 진다면 어떤 분야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소득분야(장애인 수당) ..... (29.3%)
- 2) 고용 및 취업분야(장애인 직업훈련 및 완전고용) ..... (21.0%)
- 3) 교육분야(교육시설 확충) ..... (4.1%)
- 4) 의료보장분야(무상의료보호제도) ..... (14.2%)
- 5) 사회문화 분야(장애인 주택제공 및 공공시설이용의 개선) ..... (19.1%)
- 6) 잘 모르겠다 ..... (10.3%)
- 7) 무응답 ..... (2.1%)

#### 전체 분석

<표 3-63> 장애인제도의 시급한 과제



“장애인을 위한 제도 및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분야가 강조되어야 하느냐”란 질문에 지체장애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들 29.3%가 “소득분야”를 주장했으며 21.0%가 “고용 및 취업분야”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가장 큰 욕구인 고용 및 취업분야보다 높게 나타나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주택 제공 및 공공 시설 이용의 개선은 요구하는 “사회 문화 분야”는 19.1%, 의료보호

제도가 채택되는 “의료보장 분야”는 4.1%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의 10.3%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장애인관련단체등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제도 및

법률이 만들어 진다면 “고용 및 취업분야”가 가장 시급히 만들어 져야 한다는 응답이 공통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즉, 장애인직업훈련 및 완전고용에 관한 법제도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결혼한 배우자의 가장 당면한 과제는 하루하루의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선결조건으로 소득분야를 지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64> 장애인제도의 시급한 과제 (연령별)

연령	소득분야	고용 및 취업	교육	의료보장	사회문화	잘 모르겠다	무응답
25세미만	22.9%	11.4%	5.7%	22.9%	14.3%	17.1%	5.7%
25~29세	27.0%	20.6%	9.5%	9.5%	27.0%		6.3%
30~34세	26.5%	27.2%	4.3%	13.0%	19.1%		9.9%
35~39세	31.0%	24.1%	1.6%	12.3%	18.2%		2.1%
40세이상	30.8%	18.5%	4.3%	16.0%	19.3%		1.0%

#### 연령별 분석

35~39세 배우자의 경우 31.0%가 장애인 수당 등 소득분야가 제도적으로 뒷바침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으며, 30~34세 배우자 27.2%는 고용 및 취업분야, 25세미만의 배우자 22.9%가 의료보장, 25~29세 배우자는 사회문화분야(27.0%)와 교육분야(9.5%)를 강조했다.

#### 학력별 분석

장애인을 위한 제도 및 법률은 생활의 어려운점과 취업의 애로사항, 장애로 인한 의료보호제도가 시급하다는 의료보장 분야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는 소득분야의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반응은 무학 배우자 응답은 36.9%, 국졸 32.3%, 중졸 28.3%, 고졸 27.5%, 전문대



졸 21.7%, 대졸 배우자 응답은 14.3%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직업훈련 및 완전고용을 위한 취업분야에 무학 10.8%, 국졸 15.4%, 중졸 26.8%, 고졸 25.0%, 전문대졸 19.0%, 대졸 33.3%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공적부조인 의료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의료보장 분야에는 고졸 배우자 8.8%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관계없이 13.0%이상을 상회했다.

뿐만아니라 장애인 주택 제공 및 공공시설 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문화 분야에 14.0%에서 22.1%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장애인을 위한 제도 및 법률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지역별 분석

장애인을 위한 법률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장애인수당 등 소득분야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는데 이는 문항 32번에서 지적한 것과 동일하게 정책적 우선순위와 같게 나타났다.

즉, 소득분야는 농·어촌 배우자가 30.5%, 중소도시 25.2%, 대도시 배우자는 무려 36.4%를 우선 순위로 꼽아 장애인가구의 영세한 생활실정을 극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이와함께 고용 및 취업분야도 강조하고 있는데 농·어촌 배우자는 23.3%가 중소도시는 24.3%, 대도시는 13.9%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주택제공 및 공공시설 이용의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는 사회문화분야에 농·어촌 배우자는 17.6%, 중소도시는 20.6%, 대도시는 18.7%를 차지했다.

또한 의료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의료보장분야는 농·어촌 배우자는 14.2%, 중소도시는 13.3%, 대도시는 14.4%를 차지했다.

이처럼 장애인 관련 법령들의 중요성은 소득, 취업, 사회문화, 의료, 교육분야 등 모두가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결혼한 배우자들의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우선순위였다.

즉, 교육분야는 농·어촌의 배우자가 5.7%, 중소도시 배우자는 4.0%, 대도시는 1.9%의 응답율을 보여 배우자들에게 현재 현실적으로 생활과 밀접하지 않는 교육분야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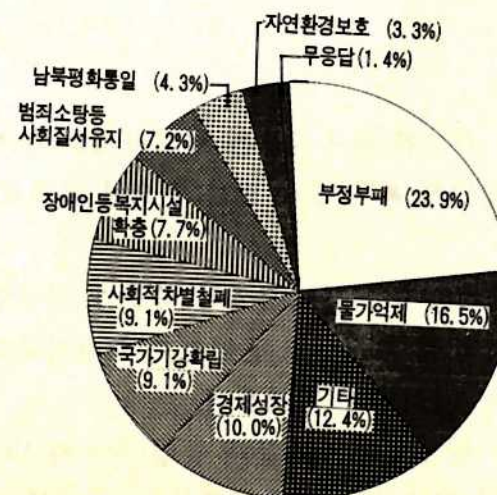
## 33. 문민정부의 선결 과제

문민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민주주의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중요한 목표들이 많습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부정부패척결	(26.0%)
2) 경제 성장	(10.4%)
3) 국가기강 확립	(4.3%)
4) 남북 평화통일	(3.5%)
5) 자연 환경 보호	(1.5%)
6) 국방 강화	(0.1%)
7) 범죄소탕 등 사회질서 유지	(6.4%)
8) 물가억제	(9.9%)
9) 장애인·여성·노인 등에 따른 사회적 차별 철폐	(16.0%)
10) 복지시설 확충	(9.4%)
11) 기타	(10.7%)
12) 무응답	(1.7%)

### 전체 분석

〈표 3-65〉 문민정부의 선결과제



“문민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배우자 26.0%가 “부정부패척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노약자에 따른 사회적 차별 철폐”가 강조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배우자도 16.0%나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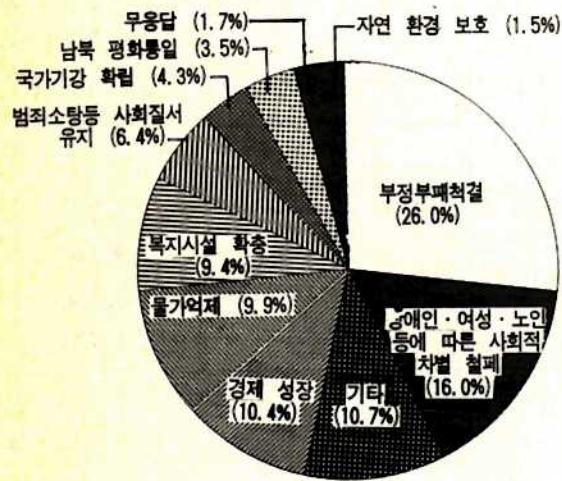
특히, 배우자들은 경제성장 (10.4%), 물가억제 (9.9%) 등이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가 우선 순대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복지시설의 확충(9.4%), 범죄소탕등 사회질서유지(6.4%), 국가기강확립(4.3%), 남북평화통일(3.5%), 자연환경보호(1.5%), 기타(10.7%)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방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우자는 858명 전체응답자중 단1명만이 요구했는데 이는 40세이상의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배우자로 나타났다.

<표 3-66> 대도시장애인 배우자가 진단한 문민정부의 선결과제



강조했다.

### 학력별 분석

문민정부에 거는 기대와 개혁속에서 장애인 배우자들은 압도적으로 부정부패척결을 요구하였으며 이와함께 경제성장도 빼 놓을수 없는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또한 물가억제 정책의 시급함을 지적하였으며 복지시설의 확충과 장애인등 저소득계층과 노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도 문민정부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히 요청하는 배우자들은 전문대 졸업 배우자 13.0%를 제외하고는 22.0%를 훨씬 웃돌았으며 경제성장 우선 정책도 7.0%에서 17.0

### 연령별 분석

나이가 많은 배우자일수록 최근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큰 목표를 두어야한다고 응답한 반면 나이가 젊은 배우자 일수록 남북통일, 자연환경, 물가억제 정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5~29세 배우자 중 22.2%는 장애인, 여성, 노인등에 따른 사회적 차별 철폐와 복지시설 확충을 크게

%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물가억제는 무학 배우자 16.9%, 국졸 11.1%, 전문대졸 17.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복지시설 확충 요구는 무학 배우자가 13.8%, 국졸 10.0%, 중졸 10.2%등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장애인등 사회적 차별 철폐는 무학배우자의 경우 10.8%와 국졸 14.0%, 중졸 20.1%, 고졸 18.6%각각 나타났다.

### 지역별 분석

대도시나 농촌, 중소도시 관계없이 문민정부는 부정부패의 척결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목표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체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30.5%는 부정부패척결은 문민정부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소도시 배우자 20.3%는 장애인 여성, 노인들에 사회적 차별 철폐를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참 민주주의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문민정부는 물가억제에 중요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16.5%의 대도시 배우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 제4장 조사의 결과 및 정책 제언

### 1. 평가 및 분석

장애남편을 둔 전국의 장애인 배우자들의 가정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과 고충 및 장애인 복지의식을 알아보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보장을 강력히 요구, 경제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바침이 시급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응답한 배우자들은 취업보장을 가장 시급히 요청하는 남자 장애인과 일반 비장애인들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요구조건과는 크게 다른 면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배우자들은 남편이 장애로 인하여 무직이 30.2%나 차지하고 부인이 직접 주 소득원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경우가 30.7%를 차지 장애남편의 내조와 함께 힘겨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남편들이 직업이 있다할지라도 단순 노무직이나 영세한 기능기술직에 종사하면서 50만원 미만의 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제적 어려움이 더 가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배우자들은 상당히 남편 직업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어떤 형태로든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렇듯 장애남편을 둔 배우자들은 어떤 현안보다도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조건 환영하고 또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장 우선 반영하고 있다.

즉, 제도적·법적 마련을 위한 개선이나 정책마련에 있어 무엇보다 장애인 가구의 생활보장을 위한 소득분야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의 경우는 다소 여유가 있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강한 바람으로 나타났으나 남편과 부인이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부부장애인에 대한 생활보장 정책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세한 생활속에서도 결혼과 가정생활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 남편의 직업에 강한 불만을 터트리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이는 경제생활의 어려움속에서도 가정의 행복과 장애로 인한 결혼의 어려움을 깊이 간직하고픈 소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자녀나 친척이 장애인과 결혼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란 질문과 “장애아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란 질문에서 18.2%만이 결혼에 찬성한다고 표명했으며 장애아 출산은 11.1%는 출산하겠다고 응답하고, 66.4%는 태어나는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중절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는 장애인과 직접 살면서 혹은 본인이 장애인으로 사회생활에 제약되는 부분과 편견으로 인해 결혼 및 출산을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장애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즉 모자보건법 등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강화, 도로교통법등 장애발생에 따른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장애인도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편견의 턱을 없애는데 일반 시민들의 호응이 요청된다.

### 2. 정책의 제언

#### 가. 정책의 기본방향

시설위주의 정책방향 탈피 및 재가장애인자립으로의 정책전환

#### ○ 장애인복지예산의 투여구조

- 장애인복지 사업예산 규모는 전체국가예산('93년 기초) 38조원중 0.12%에 해당하는 총 460억원으로

- 그중 76.2%인 334억원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비로 집중투여되고 있음.

- 나머지, 27.4%인 126억원만의 재가장애인복지서비스 비용에 지원되고 있음.